

## 미주평안교회 세대교체 이루고 새출발

### 임승진 담임목사 위임 송정명 원로목사 추대

미주평안교회가 제 4대 담임 임승진 목사 위임 및 송정명 목사 원로목사 추대예배를 지난 25일(일) 오후 3시에 드렸다.

이날 교회 예배당은 위임식과 원로목사 추대 및 출판기념 음악회를 축하하러 온 손님들로 가득 차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1부 임승진 담임목사 위임식, 2부는 송정명 목사 원로목사 추대, 3부 출판기념 감사 음악회 순으로 3시간여 동안 열렸다. 1부 위임예배는 집례 송정명 목사, 기도 김영수 목사(한국 신수동성결교회), 설교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권면 김영길 목사(감사한인교회), 축사 차광일 목사(미주성결교회총회장), 위임기념패 증정, 기념품 증정, 취임인사 순으로 열렸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에서는

임승진 목사의 집례로 시작해 격려사 박희민 목사(미주성시화 대표), 회고사 유백열 원로장로, 꽃다발 증정, 감사장 전달 에드워드 비대우리(LA카운티 정신건강국) 순으로 진행됐다.

임승진 목사는 취임인사에서 "새로운 사역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말씀과 치유, 구제, 선교 사역에 집중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도를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에서 격려사를 전한 박희민 목사는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중요하데, 송 목사님은 시작과 끝을 잘 맺었고, 또 훌륭한 후임자를 세운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린다"며 "은퇴 후 건강하고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복된 사역을 이끌길 바란다"고 밝혔다.

» 10면으로 이어짐  
 토마스 맨 기자

### 이란 법원, 아브디니 목사 항소 기각... 8년형 확정

이란 예반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란 출신 미국인 사에드 아브디니(Saeed Abedini·32) 목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테헤란의 제36 항소법원은 국제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당초 그는 8년형을 언도받고 이를 감면해 달라며 항소했었다.

그동안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의 변호를 담당해 온 미국법과정의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의 요르단 세클로우(Jordan Sekulow)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란 정부가 이러한 항소 과정을 거쳐 마지막에는 사에드 아브디니 목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에드 목사의 가족과 더불어 가능한 모든 선택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가 이란 정부를 더욱 압박할 수 있는 방안을 국내외적으로 고려 중이다. 이번 결정은 이란 정부가 종교·연대·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비난했다.

아브디니 목사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2년 여름 체포됐다. 그러나 ACLU에 따르면, 그가 체포된 진짜 이유는 기독교 신앙 때문이다. 감옥에서 그는 수없이 구타를 당해 기절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독방에 감금돼 있다.

» 9면으로 이어짐



남가주 한어권 청년사역자들 한 자리에 = 2세대를 무장시켜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을 깨우기 위한 남가주 자마대회를 앞두고 22일 은혜한인교회에서 한어권 청년사역자 제 2차 준비모임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사역자 20여명이 미래 한인교회를 이끌어갈 한어권 청년세대의 부흥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관계기사 10면>

## 하비스트 크루세이드, 하루에 3천명 영접

### 그렉 로리 목사

####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

#### 믿는 즉시 일어나는 기적"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은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뀌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렉 로리 목사가 이끄는 세계적

복음전도 집회인 하비스트 크루세이드(Harvest Crusade) 집회의 둘째날 밤인 24일,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를 갈망하는 3,059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집회는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24일 밤 모인 3만4천여 명의 참가자들에게 그렉 로리 목사는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러분은 새로운 곳으로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외모가 바뀌거나 하면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되고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내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문제는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내면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예를 들었다.

로리 목사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가지의 약속을 주셨다며, 그것은 첫째 "회개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으며", 둘째 "이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잊어주시며", 셋째 "이제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그리고 넷째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새

로운 힘을 얻게 되었음"이었다고 밝혔다. 로리 목사는 이러한 약속은 구하는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로부터, 중독으로부터, 과거로부터 여러분을 구하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 3면으로 이어짐  
 손현정 기자

**Sarang Healthcare Ministries**  
 32년 전통의 주류사회 크리스천 플랜  
 건강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www.saranghealthcare.com 213-986-8119  
 회원단체 CTS AmericaTV GBC CGNTV USA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11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며,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실버목회

# 지역교회에 바란다

저는 197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 후 2011년 11월 9일 담임목사 직에서 조기 은퇴한 은퇴목사입니다. 요즘은 '백수가 과로로 쓰러졌다'는 우수계 소리가 실감나도록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담임목회할 때는 제가 섬기는 교회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니 담임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나니 주님의 교회들이 시선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물론 많은 후회와 함께 말이죠.

이제는 나이 탓인지 목회현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앞으로 건강한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실버목회를 활성화할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실버목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4년 목회계획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이유는,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문화권 아래 있는지 세 세대(자녀세대, 부모세대, 어르신세대)가 공존하게 될 때 건강하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자녀세대는 예언하고, 부모세대는 환상을 보고 그리고 어르신세대는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민교회는 자녀세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서 결실을 얻었습니다. 물론 많은 젊은이들을 잃은 것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어르신세대를 위해서도 투자해야 합

니다. 자녀세대와 어르신세대에 균형 잡힌 투자가 이루어져서 실버목회가 활성화 되어 질 때 아름다운 세대교체를 이루게 되어 건강한교회로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건강한 가정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민목회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지역교회 어르신세대의 문제점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자기들을 이전처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세대, 특히 젊은 부모세대들이 교회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데 엄청난(?) 시간을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도 온 맘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떨어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지역교회에 어르신목회가 활성화 되면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세대가 정은 젊은 세대 부모 가정을 자녀로 입양하고(손주 포함), 동시에 젊은 부모 가정은 어르신 세대 가정을 신앙 안에서 부모로 입양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세 세대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가정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거양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르신세대 자원을 교회에 활용을 위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버세대에게는 교회가 필요로 하는 무궁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그들에게 26만 8천 시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가 잘 준비된 실버들에게는



**최 병 수 목사**  
Grace Silver Ministry Center 대표

물질도 있습니다. 만일 이들에게 건강만 받쳐준다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섬김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그리고 선교에서의 섬김에 어느 세대보다 크게 공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들에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에게는 성취감을, 교회에게는 갖추어진 일꾼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인생 마지막 정거장에서 천국행 열차를 탑승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역입니다.

네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자원봉사자들이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에도 섬김이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건물을 관리하는데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각종 안내와 섬김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필요한 일꾼을 유급자로 채우기에는 재정이 넉넉치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바쁘게 삽니다. 자녀를 기르는 젊은 부모들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섬김을 받는 세대에서 섬기는 세대로 생각을 바꾼 어르신세대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들이 훈련만 된다면 교회봉사에, 사회봉사에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실버세대는 할 일이 있으니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양질의 자원봉사자들을 얻게 되니 동시에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실버목회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기도를 통해 영적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생활의 근본은 영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한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합니까? 주일학교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자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교회의 Youth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새벽마다 전문적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실버세대들은 중보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응답을 확인하는 훈련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의 소리가 결코 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입국비자 없이 어디든지 갑니다. 지역교회가 실버세대들에게 주일학교 학생 중에서 손주로 입양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부모는 어르신들을 영적인 할머니 할아버지로 입양해서 보살핀다면 지역교회는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번째 이유는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는 날은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실버세대 또한 사명자들입니다. 65세 은퇴가 아니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Re-Tirement가 아닙니까? 타이어를 바꾸고 그 나이에 적합한 일을 맡아서 계속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실버세대(66세-75세)에게는 그들에게 알맞은 일감을 제공하고, 골드세대(76세-85세)또한 그들에게 알맞은 일감을 제공하고, 그리고 다이아몬드세대(86세-100세)또한 그들에게 맞는 일감을 제공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어르신세대 모두 죽을 때까지 하나님나라를 위해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었 6:1-3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 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장수하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성경에도 실버세대들은 존경과 공경할 대상이었고, 그들은 지혜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기쁨과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 실버목회 활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지역교회 실버목회 활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뉴멕시코 주 "동성결혼자 인권은 수정헌법 1조보다 우위" 논란

워싱턴 주의 꽃집과 오레곤 주의 빵집이 동성결혼식에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하길 거부했다가 차별금지법, 소비자보호법 등으로 소송을 당한 가운데, 뉴멕시코 주에서는 전문 사진관이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했다가 주 대법원에서 지난 목요일 패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뉴멕시코 주는 뉴저지 주와 합

계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드물게 동성결혼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지역이다.

주 대법원은 "동성결혼식 사진 촬영을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을 어기는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대중에게 상업적 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관은 차별금지법의 적

용 대상이 되며 동성결혼자를 이성결혼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에드워드 차베즈 판사는 "동성결혼자에 대한 차별은 인종간 결혼자를 차별하는 것과 같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엘레인 포드 그래피 측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뉴멕시코

주 인권법은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 인권법은 종교 단체가 자신들의 종교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던 로렌스 판사는 "자유 시민이 법에 의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수정, 타협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한 대가

라고까지 했다. 이에 대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그런 생각들은 전례없는 무시무시한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인들은 사명을 하기 위해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을 보고 있다.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었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킨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 \$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 한인신학교 최초 ATS 정회원 인준

**ATS란?** ats  
미연방 고등교육인증협회(CHEA) 소속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탈렛, 클레어모트, 아주사 등 미국·캐나다에 260여 학교 멤버가 소속되어 있는 신학대학원 최고 협의체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ATS의 정회원 인준을 받음으로 한인신학교 최초로 미국 신학교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b>모집학과</b> "원서모집마감 8월 30일(금)"	<b>재정안내</b>																
<table border="1"> <tr> <td>학사과정</td> <td>• 성서신학과(BABS) • 음악학과(BAM)</td> <td>• 기독교 상담학과(BACC)</td> </tr> <tr> <td>석사과정</td> <td>• 목회학과(M.Div) • 기독교 상담학과(MACC)</td> <td>• 신학과(MAT) • 음악학과(MAM)</td> </tr> <tr> <td>박사과정</td> <td>• 목회학(D.Min)</td> <td></td> </tr> <tr> <td>단기과정</td> <td>•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FCC) • 유아교육 원장 과정 / 유아교육 교사 과정(ECE)</td> <td></td> </tr> </table>	학사과정	• 성서신학과(BABS) • 음악학과(BAM)	• 기독교 상담학과(BACC)	석사과정	• 목회학과(M.Div) • 기독교 상담학과(MACC)	• 신학과(MAT) • 음악학과(MAM)	박사과정	• 목회학(D.Min)		단기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FCC) • 유아교육 원장 과정 / 유아교육 교사 과정(ECE)		<table border="1"> <tr> <td>학생 응자</td> <td>학생 응자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가능하며,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음.</td> </tr> <tr> <td>펠 그랜트</td> <td>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값을 필요 없음.</td> </tr> </table>	학생 응자	학생 응자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가능하며,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음.	펠 그랜트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값을 필요 없음.
학사과정	• 성서신학과(BABS) • 음악학과(BAM)	• 기독교 상담학과(BACC)															
석사과정	• 목회학과(M.Div) • 기독교 상담학과(MACC)	• 신학과(MAT) • 음악학과(MAM)															
박사과정	• 목회학(D.Min)																
단기과정	• 가정상담 사역자 과정(FCC) • 유아교육 원장 과정 / 유아교육 교사 과정(ECE)																
학생 응자	학생 응자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에 가능하며, 졸업 후 낮은 이자로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음.																
펠 그랜트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값을 필요 없음.																

**2013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

**ATS 인준 감사예배**

- 일 시: 2013년 9월 7일 오후 6시
- 장 소: 월드미션대학교 채플(6층)

**월드미션대학교** 총 장: 송정명 박사 D.Min  
설립자: 임동선 박사 Ph.D., D.Min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E-mail: wmuinfo@wmu.edu Website: www.wmu.edu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입학문의**  
213.388.1000 Ext.106  
E-mail: admissions@wmu.edu  
Website: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TRACS 정회원

5th St. 워싱턴대학교 6th St.





세계적 복음전도 집회인 '하비스트 크루세이드'가 23일부터 애너하임 에인절 스타디움에서 개최됐다. 그렉 로리 목사는 24일 밤 모인 3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변화'에 대해 설교했다. 이 같은 메시지에 3천여명이 응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로리 목사는 선포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바로 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구원 받은 교인이 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라고 로리 목사는 물었다. 그는 "손가락을 '딱' 하고 튕기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구원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단 한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로리 목사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믿고, 죄

로부터 돌아켜서, 예수님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설명하고, 이 구원의 길로 모두가 나아올 것을 요청했다.

하비스트 크루세이드 집회는 1990년 시작되어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매년 대규모 집회로 개최되고 있다. 현재까지 486만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으며, 40만 명 이상이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교회 중 하나인 하비스트 펠로우십 교회의 로리 목사가 이끄는 이 집회는, 기독교인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 지인들을 초대해 삶을 바꾸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Love Again” 당신은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행복한 부부 세미나'가 지난 23-25일 열렸다.

제 15차 행복한 부부 세미나가 ANC온누리교회 주관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퍼시픽팜 컨퍼런스 리조트에서 열렸다. "Falling in Love Again"이란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유진소 목사(ANC 온누리교회), 유미은 사모, 강해경 목사, 강승철 목사가 총 8편의 강의를 이끌었다. 강의는 "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결혼과 가정의 의미에 관한 원론적 내용과 "사랑의 다섯가지 언어", "대화를 통한 친밀감", "부부 간의 용서를 통한 회복" 등 실천적 내용을 다뤘다. "부부 간의 친밀감/대화를 통한 친밀감"을 주제로 강의한 강해경 목사는 구약성서에 나온 세 가지 개념을 통해 친밀감을 정의했다. "친밀감은 야다(Yada), '깊이 아는 것'이며 소드(Sod), 드러내고 나타내

는 것'이고 사칸(Sakan), 사로를 위한 봉사를 통해 친밀해지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을 깊이 알고 또한 그들이 당신을 깊이 아는 것,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줌으로서 서로 깊이 개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시간을 공유하고, 공통된 관심을 갖고, 느낌에 대해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친밀감의 형성을 위해 채워야 할 10가지 욕구에 대해 설명했다. "첫째, 우리는 용납받길 원한다. 잘못된 점, 나와 다른 부분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원한다. 그리고 감사, 애정, 인정을 원한다. 상대가 한 일을 감사하며 칭찬하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또 같이 지내며 무언가를 함께 하길 원하며 비판 없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길 원한다. 이외에도 우리는 위로, 격려, 존경, 안정, 후원(support)에 대한 욕구를 지

닌다." 강 목사는 친밀감을 위한 욕구가 충족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욕구가 충족되면,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자신감, 안정감, 감사와 같은 긍정적 느낌이 뒤따르며 이를 통해 건강한 행동이 나타난다. 반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고 부정적 감정이 뒤따른다. 결국 중독, 강박, 자기 학대 같은 건강하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 행동은 비기능적인 가정을 만든다." 이어서 강 목사는 이 욕구의 충족을 위해 부부가 대화할 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의 말을 인용해 "대화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력은 7%에 불

ANC온누리교회 주최 제 15차 행복한 부부 세미나

과하며 나머지 93%는 얼굴표정, 자세, 손짓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영향을 받는다"며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마태복음 12장 34절-37절 말씀을 인용해 "의사소통이란 단순한 의미전달 행위를 넘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를 격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낙담시키고 있는지, 돕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대화할 때, 가장 소중한 손님에게 말을 걸듯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 전달방법'을 지양하고 '나 전달방법'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너 전달방법'이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그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평가의 의미를 전하는 화법이라

면 '나 전달방법'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달해 간접적으로 말하는 화법이다. 즉 "당신은 늘 이런식이야"라는 말 대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아파."라고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 표현하는 것이다. 또 '화자/ 듣는 기술'에 관해, 자신이 화자일 때, "상대방의 머릿속을 들여다 보는 듯한 말을 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만 말하고 상대방이 요점을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며 청자일 때,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며, 동의와 공감을 표할 때는 상대방의 어조와 톤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의 중간 중간 마련된 부부 토의 시간에는 강의에 참석한 24쌍의 부부들이 자유롭게 서로의 정서적 욕구에 대해 묻고 대화했으며, 토의 시간 이후에는 간단한 피드백이 이어졌고 부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회개하고 축복 기도하며 마무리됐다. 주디 한 기자

Advertisement for Dana Hospital (다나병원) featuring 3D brain scans and insurance services. Text includes: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유전자 생약치료',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Header: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Content includes: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시민권 신청,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FREE Food Stamp, HEAP(Utility Ball Payment), Social Service,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 1~6단계, 회화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방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 동성애자들 선도하려면 크리스천들이 강해져야

## [인터뷰] 새라 김 사모 TVNEXT.org 대표

얼마전 연방대법원에서 DOMA(Defense of Marriage Act)가 위헌으로 판결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서, 현재 미국 13개 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또 동성애를 포용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 면세혜택을 박탈하려는 움직임이 캘리포니아에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라고 많은 이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뛰고 있는 새라 김 사모와 서면 인터뷰를 했다. 김 사모는 현재 한인 1.5세로서 미국 주류사회와 미주 한인교계의 연결고리가 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동성결혼 문제와 관련해 칼럼을 썼다. 지난 SB48 반대서명 운동 때에 많은 활동을 펼친바 있다.

-한인 1.5세로서 기독교적인 윤리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영적 위기 속에 다음세대 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발 벗고 활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나라는 곧 '집, 가정' 과 같다. 집이자 가정인 나라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된다. 국가가 전쟁 중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건강한 청년들은 군인으로 나간다. 나는 지금 미국이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집'안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기에 집에 들어온 적과 싸우고 있는 중이다.

비유를 들자면, 미국이라는 큰집에 치열한 불길들이 집안 곳곳에 무섭게 타오르고 있기에 그 불을 끄고자 열심히 소방차 호수를 들고 뛰어다니며 있다고 할 수 있다. 내 집과 가정을 누군가 빼앗고자 하는데 싸우지 않을 사람이 없고, 가만히 모른척하고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13년이 넘게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것은 우선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미국의 회복과 다음세대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침체하다 못해 급속히 침몰해가는 미국,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교회들이 오하려 깊이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는 것, 사방 팔방에서 공격받고 있는 가정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여기는 다음세대들의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신앙의 축복들이 빼앗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미국을 향한 아픔이 어느 날 내 마음에 깊숙이 전달됐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어가며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DOMA가 위헌이 되고 캘리포니아도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가 됐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며, 앞으로 미국에 사는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미칠 영향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서 사회에 끼칠 악영향은?



새라 김 사모

DOMA가 위헌이 되었다는 것과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결혼의 정의를 '남녀만의 연합'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앞으로 결혼의 의미에 대해 재정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가 RFMA(Respect for Marriage Act), 즉 "any two people는 결혼할 수 있다"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 법안의 위험성은 "any two people"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누구와, 나이 차이가 얼마쯤 나는지 상관없이, 결혼이라는 개념이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는 "소아성애병자"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제출하였는데,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이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취향과 다를 것이 없으니, 자신들

의 성적요구가 정상적인 것으로 동성애자들과 같은 권리를 달라는 형식의 논리와 요구였다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DOMA가 무너지고 동성결혼이 캘리포니아와 나머지 12개 주에 합법화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미국이라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안 그래도 공립학교의 매우 잘못된 성교육과 미국의 성적문란의 문화 속에서 그나마 지킨 결혼의 개념을 무너뜨린 것은 성적문란의 극치를 보게 될 날이 곧 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근대적 개념의 인권을 가장 먼저 명시한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에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중요 이념의 바탕을 보면 천부인권(天賦人權)이라는 자연권(natural rights, 自然

權) 개념이 있다. 인권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천부와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인데, 동성애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동성애자의 인권' 이다. 그들의 주장이라면 동성 간의 사랑이 자연스럽다는 것인데,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유전자'를 가졌다' 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의견은?

'동성애자의 인권'은 그 동안 미국에서 'Civil union' 'civil Partner' 'same sex union' 등의 이름으로 충분히 존중되어졌으며, 그들도 일반인들과 똑같은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아왔다.

따라서 '동성애자의 인권'이라고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single'들이 마치 자신들에게도 '결혼한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라'라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동성애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많은 일반인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권에 찬성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미움의 대상'으로 왕따를 시킬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서비스를 안하겠다는 개인적 권리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붙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유전적'이라는 주장이 틀리다는 너무나도 많은 의학 자료들이 있다. 첫 번째로 네일 화이트헤드 박사(Dr. Neil Whitehead)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자녀를 적게 낳는 행동양식은 결코 유전이 될 수 없다.

어떤 특정한 행동양식(예: 동성행위)을 갖게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집단(동성애자들)이 자녀를 적게 낳게 되면,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결국에

는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그 결과로 특정 유전자를 가진 집단(동성애자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의학적 이치라 한다.

두 번째로 그들의 성관계 과정, 대상, 방법들은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성관계라는 사실이다. 동성애 성관계는 동성인 대상을 비롯해 비정상적인 성관계이기에 절대로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도 없고, 성관계 안에서 유전자를 만들어주는 DNA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네일 화이트헤드 박사에 의하면, 인체 내에 있는 DNA는 마치 프로그램이 내장된 아주 작은 컴퓨터라 보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성된 한 개의 세포로 된 수정란이 분열하여 100조 개의 세포로 된 몸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100조 개의 세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독특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심장, 간, 위장, 두뇌 등 각각의 장기는 수백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독특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전체적인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유전일수도 선천적일수도 없음을 쌍둥이와 두뇌연구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확실히 검증된 사실이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할 필요도 없이 유전적이지도 선천적일수도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기능을 통해서만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만드셨고 그것이 창조된 질서이며 자연의 법칙이다. 입으로 밥을 먹 는 이유는 입의 기능이 음식을 씹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는 숨만 쉬게 되어있다. 코로 밥을 먹고자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코는 숨을 쉬는 기능이지 음식을 먹는 기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 8면으로 이어짐

**초스피드 다이어트** **미용침** · 열공촉수 (안면지방제거)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매해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 Tel: 213.380.7800/380.6868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도입!**

**유전자 생약치료 프로그램 (gene nutrition herbal therapy)**

노화, 콜레스테롤, 혈관, 항산화,비만, 당뇨병, 고혈압, 치매, 중풍, 관절염, 파킨슨, 유방암 전립선암, 직장암, 식도암, 난소암등에 관련된 유전자외에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상담을 하고,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특별무술수기법에 의한 완고한 통증(요통,오십견, 무릎관절통, 좌골신경통등)의 치료도 하고있습니다.

태바 선교후원회 부설, 다나 병원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다나병원의 수익금은 전액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다나병원** 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다나병원의 3D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 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상태뿐 아니라 위험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즉시 코드화한 3D 입체 칼라 영상을 통해 이상이 있는 부위와 문제를 수치와 영상으로 보여주며, 이에따른 최적의 건강관리와 최상의 비화학적 치료를 안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치료 후의 효과도 재검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0분 미만의 초스피드 검사
- ✓ 즉석에서 결과 확인과 상담
- ✓ 최상의 치료관리법 안내
- ✓ 초 저렴 검사 및 상담비



# 하나님이 없다하는 자의 하나님

시편 53:1-6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속성을 피 가운데 되돌림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해서 '목표가 어긋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코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육체는 흙을 의지하고 살기 원하는데 흙이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은 본체이신 하나님을 흠모하고 어려움을 당할 적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영의 본성이 하나님과 통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절의 '어리석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발'이며 미련하다는 뜻도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2절의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동격으로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지각(知覺)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각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도 하며 일반계시라고도 합니다. 계시(啓示, revelation)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심을 말합니다.

자연계를 통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체험과 감동, 조명과 계시, 성령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는지,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2절).

3절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마귀와 함께 더러운 생활을 일삼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한탄하시는 듯한 여운을 남기신 말씀입니다.

4절에 내 백성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인자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무지한 백성들이 떡 먹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행패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쓰러뜨려그들과 함께 마귀 앞잡이가 되어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함께 지옥에 들어가도록 쉬지않고 기회를 엿보면서 우는 사자가 삼킬 대상을 찾아 노리듯이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을 삼켜서 지옥에 토하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잠인 28장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양심은 영혼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소망을 가꿀 수 있는 잣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성을 잃고 하나

님이 없다고 허황된 허구를 외치고 광기를 일삼는 사람들도 정신이 온전할 때는 스스로 죄책감 때문에 하늘에서 천둥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기 바쁜것은 양심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을 묵살하면서 악을 더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장담하고,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이성 잃은 사람들, 심령이 화인맞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것을 사는 목적으로 알고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영적 성과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고 시비 걸고, 훼방하며 대적하기를 일삼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진을 치고 발악하고 살기등등해서 위협하고, 때리고 욕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양심 밑바닥에는 자신이 전혀 두려워할 환경도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입니다.

성도가 땅에 사는 동안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휘방과 대적과 횡포를 당하는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마귀 소굴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만사형통하고 순풍에 돛을 단 듯 모든 것이 잘 된다면 기도도 신앙고백도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세상조건에 머물고 싶어 하늘소망을 내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영적 소속 관념을 분명히 해서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성령을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늘 시민권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적 입장에서 당하는 어떠한 핍박과 고통도 참고 이겨내 끝까지 하늘 영광 중에 결실하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종국(終局)엔 본문 6절과 같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교회를 의미하며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백성을 대칭(代稱)하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반드시 성도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하고 타락해가고 세속화되면서 현실에 자꾸만 빠져들게 될 때 하나님은 환란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을 지녔던 가짜신도는 세상으로 다 넘어지게 되고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앞에 심겨진 성도는 오히려 정신차리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한 세력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증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외과 주임교수인 샘이 있었고 같은 대학에 물리과 주임교수인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나이

도 비슷하고 서로 친한 사이이지만 샘은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인이었고 톰슨은 불신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객기를 부리고 큰소리 치며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는 사람을 간섭하고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는 자기 것이니 내 마음대로 원하는 인생으로 만끽하며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톰슨에게 샘은 열심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외과의사로 수천명을 수술했는데 그중엔 의학적으로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수술을 했음에도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두어달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지만 석달이 넘어서 그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간 교회를 다니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불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는 듯 싫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 나온 것 같은데, 한번 진찰을 받아보고 싶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찰을 보니 사방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는데 불에 탄 흔적만 남아 있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냐고 톰슨에게 말을 했을 때 톰슨은 "웃기는 얘기 하지말아라. 너가 예수 울무로 나를 얹어매려고 온갖 말로 유혹하고 설득하려 하지만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게 벌을 줘보라고 해봐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6세였습니다. 샘은 늘 톰슨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어 불가항력적 은혜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톰슨은 그런 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도대체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지 의아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49세가 되던 해 샘은 그의 부인으로 부터 다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달려가보니 그가 에이즈에 걸려 살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후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잠을 계속 못 잔다는 것입니다. 잠만 자면 온갖 구멍이 자신을 통째로 삼키려하고 온몸을 감고 목

을 조여서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썩어가는 에이즈도 고통스럽지만, 마귀에게 시달리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래 살면 3년 정도 더 살겠고 그렇지 못하면 1년 안에 죽겠지만 악몽으로 잠을 전혀 잘 수 없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어 몸은 여위어가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샘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해 주실까?"하고 물었습니다. 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조여가시는 것은 너를 택하신 증거가 아니겠는가"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었다면 이런 병과 악몽으로 시달리는 생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까지 몰아가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샘의 이 한마디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고 매달리며 기도한 후 용서받은 평안과 함께 성령의 생기와 소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톰슨은 "내가 멀쩡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하며 후회하며 죽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살려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의 영이 부끄러운 구원은 얻었다는 고백서가 어느 신문에 한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도 악령에 깊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없다고 객기를 부리고 허황된 허구성을 드러내면서 괜히 악을 쓰고 대적하면서 발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전도하다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악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계신다는 것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난 척 하지 말고 오로지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깨닫게하심을 바라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일은 어떤 부담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기독교일보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p>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p> <p>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p> <p>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p>					

#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9월 9일 개강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_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128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05

## 인간에게 주어진 딜레마

구약성경을 읽다가 제일 먼저 걸림 돌이 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선악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에덴동산에 이 두 나무를 심지만 앉으셨어도 '원죄', '에덴에서의 추방', 그리고 '선악악의 끊임없는 싸움' 같은 골치아픈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인류의 조상 아담 부부를 두고두고 욕먹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두 나무를 동산의 변두리에만 심어도 사정이 좀 나왔을텐데, 하필이면 동산 '정 중앙'에 심어서 매일 오가면서 유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심술궂은 것을 먼저 하시고, 유혹에 걸려든 아담 부부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처벌해 버린 것입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두 나무의 열매를 오가며 보게 되는데, 한번쯤은 호기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우화에 보면 '선악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는 생김새가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선악의 열매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매력적으로 생긴 반면에, 생명의 열매는 '작고 못생기고 시시떨떨한 맛'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생명의 열매를 먹고 싶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생명과(果)보다는 선악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겁을 잔뜩 주신 후에, 인자하신 모습으로 맛없는 생명과만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부당한 명령이지만, 아담 부부는 착하고 순진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에 손을 대는 큰일을 벌이기 전까지 그들은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날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만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옆에 그 싱싱한 선악과를 보면서 말이죠!

프랑스 사상이 불테르는 순박한 아담 부부가 죄인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의 빌미를 제공한 하나님이야말로 분명한 '유죄'라고 선언합니다. 본능적으로 끌리게 만들어놓고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사악한 사디스트(Wicked Sadist)'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복잡한 짓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생각'로 만들어진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피조물입니다. '선택'은 인간만이 가진 최고의 '자유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련하게 맛없는 '생명의 열매'만 따먹으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선택으로 먹음직스러운 '선악의 열매'를 따먹을 것인가? 선택의 문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은총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으니 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속명적으로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걸어 놓으신 유일한 재동장치는 선악과와 생명과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선악과를 먹고 힘겹게 인생을 헤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딜레마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LA연합감리교회 김세환 목사

##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삶(5)

인생을 살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상대가 너무 겸손하여 어떻게 처신을 해야할지 망설일 때가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상대가 너무 교만하여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을 영적 성숙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롬 6:6, 삼하 22:28)

교만은 옛사람의 속성 중 하나다. 교만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박기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이 따르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의 삶의 특성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생각해 거만해지기 쉽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면 동료들을 섬기기 보다는 소홀히 대하기가 쉽다.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교만이 생기는 것이다. 교만이 생기면 감사가 없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내가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겸

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할 때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고 계신다(시 138:6). 각자 서있는 위치에서 나는 어떤 자에 가까운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벼는 알곡이 영글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감부기는 성장해도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 이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옛사람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감부기 인생으로, 즉 교만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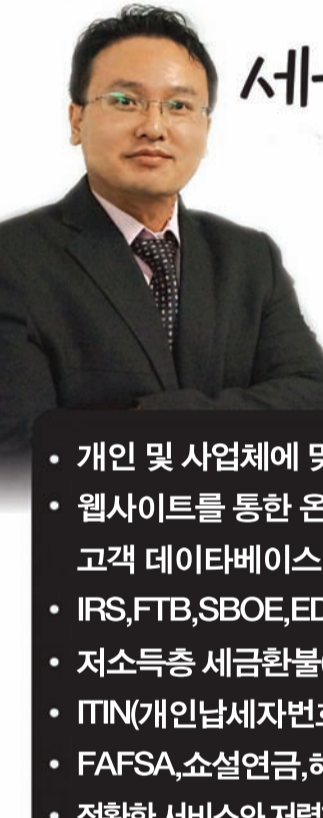
반대로 새사람의 성품으로 거듭나면 고개숙인 벼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야 한다. 영적 성숙이 뒤따르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에서 정체되고 만다. 옛사람을 버리고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엔 감부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감부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다며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주께서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물론 처음엔 매우 어렵다. 습관적으로 살아온

교만 때문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나고 거부할지도 모른다. 거부하는 그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한다. 교만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후에도 교만은 살아서 꿈틀거릴 것이다. 아직도 교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교만을 처리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 당신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겸손히 그에게 다가가라. 당신이 낮은 자세로 나아가지 않으면 주께서 강제적으로라도 낮추시게 하실 것이다. 낮아짐의 자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헐벗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당신이 겸손해질 때까지 훈련하라. 그리하면 영적으로 점차 성숙해질 것이다. 솔로몬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다(잠 16:18).



글=이명두 목사  
호크마신학대학교(hokmahcollege.com) 학장 역임  
엘에이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역임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  
호크마신학대학교 영성신학박사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프로 골프 선수 지망생 모집

- 현재 타수가 보기 플레이(90타)이하
- 대상 : 7세~11세 (1~2명)
- 코리아타운내 픽업가능
- 문의 : 310.598.0746/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 Missionary Professor)**



### Three-Level English Education <3단계 영어교육>

#### English (초급 영어)

▷What's the matter? Are you sick today?  
무슨 일인가요? 당신 오늘 아프세요?  
▷Yes, I do. I am sick now.  
네, 저 지금 아파요.  
▷Do you have a fever?  
열이 있나요?  
▷Yes, I do. I have a high temperature.  
네, 맞습니다. 열이 높아요.  
▷Do you have a soar throat?  
목이 아프신가요?  
▷Yes, I do. I am coughing, too.  
네, 그래요. 기침도 나고요.  
▷You must have the flu. Take some aspirins, and go to bed.  
독감임에 틀림없어요. 아스피린을 드시고 잠을 청하세요.

One of the two men who had heard John had gone with Jesus. He was Andrew, the brother of Simon Peter. The first thing Andrew did was to find his brother and tell him, "We have found the Messiah!" The Hebrew word, "Messiah means the same as the Greek word "Christ."

요한의 말을 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갔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류였다. 안드류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그의 형을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히브리말로 "메시아"로 헬라말의 "그리스도"란 말과 같은 의미다. (요1:40-41)

They share common interest to achieve their goal each other. It is a guidance of a leader who inspires the group of people. The leader is the central person in the group. In short, he can lead the group to reach the group destination. He is the people's choice and he can influence them. (Dr. Gangle, Feed and Lead, 1981, pp 82-83)

지도력이란 개인과 그룹 사이의 관계다.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편적 관심사를 서로 나눈다. 지도력이란 그 그룹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지도자의 내면인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그는 그룹을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인도할 수 있다. 지도자는 군중의 선택이며 그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 English (중급 영어)

Leadership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a group.

#### English (고급 영어)

자료 제공  
아메리칸침례대학 배효식 교수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동성결혼 합법화되니 소아성애병자도 권리 요구 동성애자 실제 비율은 1%에 불과 교회, 이들 향해 정죄 아닌 포용으로 회개 이끌어야

» 4면으로부터 받음

-현재 미국의 동성애자들 현황은 어떠한가?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에 오는 폐해는 무엇인가.

사실 미국의 동성애자 인구 현황이 자유주의 미디어를 통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찌 보면 미디어가 동성애를 부추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기관 중 하나다. 사실 아직 동성애자의 비율은 1% 내외다. 동성애자가 많아진 것보다는 동성애 지지자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동성애자들이 미국의 30~40%까지 된다고 대부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이 동성애자들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있을뿐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장려하고 아이들에게 부추기는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지난 1~2년 사이에 자신들이 양성애(bisexual) 또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이들은 유행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동성애를 멋있는 문화로 여기고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고, 또는 동성애자들이 부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왜곡된 보도들을 접하고 정의감에 불타는 등 또 다른 동성애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그동안의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가장 크다. △아버지 부재가정에서 자라고 또한 너무 강한 엄마와 자란 경우 △나약한 아버지(있지만 없는 것 같은 아버지)와 너무 강한 엄마사이에서 자란 경우 △어릴 적에 이미 다른 남성/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실패하고 심하게 상처받은 이성교제/결혼생활한 경우 △어릴 적이나 성장 과정 중 혹은 성장해서 동성애포 르노에 빠져 동성애가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주위 친구들의 권유와 학교분위기,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양성애/

동성애 행위에서 동성애자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동성애자들이 주장부나 연방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처음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요구한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재정 혜택(세금혜택, 재산 혜택, 의료혜택)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일부다처제나, 어떤 형식이든 잘못된 성관계와 가정이 깨진 모습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어떠한 성적 문란한 법안들과 가정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갖고 통과시키려고 할지 모른다. 이는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할 것이 훨씬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동성결혼이 허용되는 사회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첫째로 분이 되어야 한다. 우선 행복

한 엄마, 아빠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적용한다. 듄직한 아빠,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느끼고 가정과 결혼을 배운다. 둘째로 성경적, 의학적, 자연적 법칙을 아이들과 나눈다. 창세기를 읽으며 창조와 원리, 질서, 자연의 섭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셋째로 동성애자들에 대한 판단을 가르치기보다 분별력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전도대상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들의 행위는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되,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며, 크리스천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로 되도록이면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을 빼고 홈스쿨링이나 성경적인 크리스천 학교로 옮기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이를 위해 TVNEXT.org 에서 도움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어떤 것인지 선전하는 것이다.

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2년의 짧은 계획과 10년의 긴 계획 등을 준비 중에 있다.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은 앞으로 따로 발힐 예정이다.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향한 바람직한 자세와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들을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에 빠진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고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크리스천들이 강해져야 한다. 동성애에 대한 사실적이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죄에 타협하지 않되, 그들을 충분한 사랑과 인내로 잡아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준비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사회가 동성애자를 향해 받아들이고 품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자는 것이다. 그 동안 교계가 '동성애=죄' 라는 등식으로 주장해 왔는데, 이제는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품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텐데, 기독교인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는가?

방법론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들을 사랑과 친절로 대하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해받고 진심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무엇보다 그러한 관계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소망을 두셨음을 알려줄 때, 마음을 열며 하나님께로 나와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인내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치유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기다림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 물론 동성애 행위와 타협하면 절대 안된다.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왔을 때 교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을 대할지를 미리 의논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교육시켜주는 것이다. 그들이 왔을 때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대하도록 하되 더 친절하고 더 많은 사랑의 관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토마스 멩기자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하나의 영적전쟁이라고 말한다. 앞으로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며,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개개인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교회나 교계에서 앞으로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전개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동성애 운동가들과 반기독교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의 전략은 성적문란->동성애/동성결혼 합법화->더 심각한 성적문란(동물과 사체와의 성관계)->가정 파산->이슬람들의 정복->반기독교적인 미국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슬람의 빠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움직임과 교육 안에서의 활발한 활동들이다.

지금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때를 분별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고, 지식 경비,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이다.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움직임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투표, 반기독교적 법안에 서명, 가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TVNEXT에서는 현재 미국의 총

## 크리스천 헬스케어

### 저렴하고 성경적인 의료 비영리단체

크리스천 헬스케어 미나스트리 (CHM) 은 미 전역 50개 주에 살고있는 수만명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서로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30년 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사역은 서로의 짐을 짊어지려는 신앙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의료비 대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도 적합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CHM은 보환이 아닙니다.

**플랜의 특징**

- 건강보험보다 저렴함
- 오바마케어 헬스플랜
- 골드플랜의 최고자원액 : Unlimited
- 실버 / 브론즈의 최고자원액: 첫째 \$225,000까지 (BK 포함)
- 전국 50개 주에서 가입 가능
- 대기기간 (waiting period) 이 없음
- 훌륭한 임신 / 출산 프로그램 포함
-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선택
- 신체검사나 파검사가 없이 가입
- 자병 / 신분에 관계없이 가입
- 한국의 병원도 이용가능
- 화원스기마다 본인의 한달치 회비 면제
- 나의 나들이 이웃 크리스천의 필요한 의료비로 전달되며, 또 나눔을 도울 이웃 크리스천이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사실 (눅 6:38)

	1인	2인	가족
골드	\$150	\$300	\$450
실버	\$85	\$170	\$255
브론즈	\$45	\$90	\$135

**CHM 한인지원국** [www.chman.org](http://www.chman.org)  
 T) 213-444-1599, 714-228-9954 F) 714-228-9938  
 CHM Korean Outreach, 8362 Artesia Blvd. Suite 1, Buena Park, CA 90621

Gold	골드: 월 \$150/인	Silver	실버: 월 \$85/인
\$0 ~ \$500	본인 부담 또는 그룹의 경우 HRA 가능	\$0 ~ \$1,000	본인 부담 또는 그룹의 경우 HRA 가능
\$501 ~ \$125,000	골드플랜이 100% 지원	\$1,001 ~ \$125,000	실버플랜이 병원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100% 지원
\$125,001 ~ Unlimited	추가 : 브리더스 커피 플랜, 최고지원 한도액 ~ 무제한	\$125,001 ~ \$225,000 ~ \$325,000	추가 : 브리더스 커피 플랜, 첫째 총 \$225,000 까지 지원, 매년 \$100,000 씩 지원액 증가.
1. 케이스당 \$500 이상의 의료비용 일년 개인분담금은 \$500 이지만, \$500미만의 케이스들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2. 검사나 수술로 이어지는 의사방문비, 처방약 비용을지원합니다. 3. 임신 / 출산시 개인분담금 \$500 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용을 지원합니다.		1. 병원 (hospital)에서 발생하는 수술비와 입원비만이 지원됩니다. 2. 출산시 병원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지원됩니다.	

Bronze	브론즈: 월 \$45/인	브리더스 커피 (B.K.)
\$0 ~ \$5,000	본인 부담 또는 그룹의 경우 HRA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기치 못한 중병에 대한 보호장치</li> <li>• 한 케이스당 \$125,000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의료비용을보조하는 플랜.</li> <li>• 골드: 가입 즉시 최고지원액이 무제한으로 증가.</li> <li>• 실버/브론즈 : 가입 즉시 최고지원액이 \$225,000로 증가. 그후 매년 추가로 십만불씩 증액.</li> <li>• 연간 운영비용 : 가족당 \$40.</li> <li>• 분기별 지불액 : 평균 \$22/인 (가족은 3인)</li> </ul>
\$5,001 ~ \$125,000	브론즈플랜이 병원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100% 지원	
\$125,001 ~ \$225,000 ~ \$325,000	추가 : 브리더스 커피 플랜, 첫째 총 \$225,000 까지 지원, 매년 \$100,000 씩 지원액 증가.	
1. 병원(hospital)에서 발생하는 수술비와 입원비만이 지원됩니다. 2. 출산시 병원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지원됩니다.		

**가입조건** :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고자 하며, 담배와 술을 삼가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입을 할까요?**  
 한인지원국 213-444-1599 또는 714-228-99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www.chman.org](http://www.chman.org) 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입하실수도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 회사의 그룹가입 문의는 213-842-3906 또는 [steven@chman.org](mailto:steven@chman.org) 입니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 미주장신대 주최 공개강연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가 신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풍성한 신학과 신앙의 양식을 나누는 공개특별 강연 및 사경회를 마련한다

오는 9월 11일(수)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먼저 힘센 자를 갈라하지 않으면-현대사회 속 악령 문화에 대해 말하다'를 주제로 강요셉 박사를 강사로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 박사는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9월 23일(월)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삼위일체의 체현-전 지구적 관점에서 본 삼위일체 신학과 영성"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정성욱 박사(덴버신학교 조직신학 교수)가 나선다.

10월 3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는 서울대 물리천문학 교수 우종학 박사를 강사로 초청

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여 과학을 품어라"를 주제로 열린다. 우 박사는 NASA 허블 펄로십 및 포스코 청암과학 펄로십을 수상했다.

10월 29일(화)에는 "교회, 동성애에 대해 말하다"를 주제로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시간은 미정.

이날 사회는 강우중 교수(미주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가 맡는다. '동성애 실태 및 일반의 이해'와 '동성애 확산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대안 제시' 등을 주제로 한 발제가 이뤄진다.

아울러 사경회는 11월 5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규구동 목사(일본 동경요한교회)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린다. 이밖에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학교 측에 연락하면 된다.

>문의: (562) 926-1023



###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건 무엇일까?

폴 트립 박사 '하나님의 자녀들과  
없어지지 않는 것들' 칼럼 게재



폴 트립 박사

美 복음주의자이자 저술가인 폴 트립 박사는 26일 크리스천포스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폴 트립 박사는 자신의 인생 암흑기에 하나님의 섭리로 수 년 동안 자신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서, 이들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해 왔다. 그는 특별히 '영원'에 집중한다. 성경의 시각으로 인생을 풀어내면서,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강조하고, 늘 이를 간구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트립 박사는 "여러분 삶 속의 모든 것이 다 닳아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서 겨울마다 꺼내 입었던 옷도 지금은 옷장의 제일 밑에 있어서 잘 안 입게 된다. 여러분을 흥분하게 만든 새 자동차도 이제는 소리가 나거나 굽히지 않았나? 카펫도 더 이상 얼룩이 지지 않는 카펫이 아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닳아서 없어진다. 사실 여러분 자신조차도 쇠한다. 여러분의 몸은 늙고, 약해지고, 힘들어진다. 수년에 걸친 삶의 경험에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들로 인해 여러분의 무릎도 상한다"고 말했다.

트립 박사는 "우리 모두는 어떤 것이든 단 순하게 지속되지 않는 세상에 사는 데 매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닳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사실 매일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게'(예레미야 3:22-23)고 말씀하신다. 매일

여러분 대부분은 어떤 모습으로든 흐트러진다. 매일 여러분은 개인적인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큰 일을 마주하게 된다.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용서의 자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가 매일 새롭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절대 낡지 않고, 하나님은 변화의 능력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는 또한 날마다 새롭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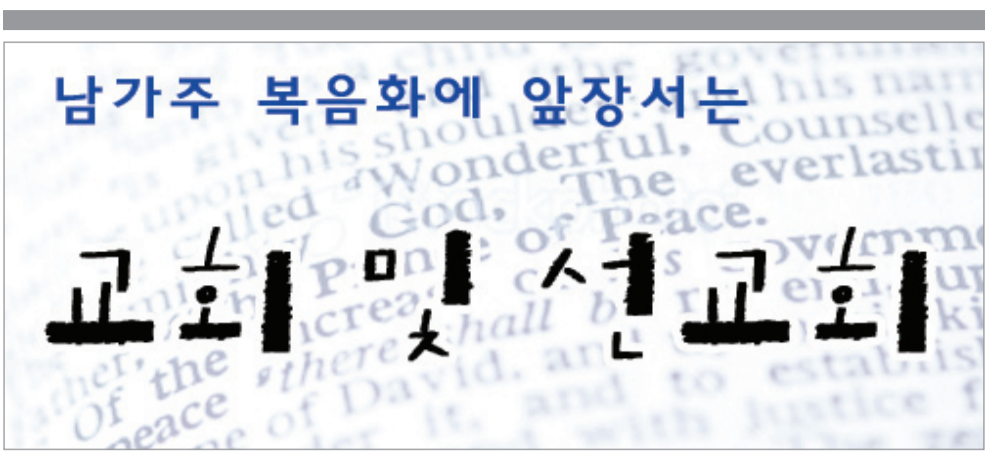
그는 또한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이 지금 처한 문제에 적합하며, 매일 아침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특별한 일을 위해 새롭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용기와 희망을 갖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은 영원히 닳지 않을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또한 매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끝을 맺었다.

트립 박사는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 4가지를 던졌다.

1.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닳아 없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2. 어제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님의 용서의 자비로 인한 은혜를 경험했는가?
3. 이번 주 마주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가?
4. 아침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로부터 오늘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폴 트립 박사는 풀립비아 국제대학교와 필라델피아 신학대학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독교상담교육재단의 조교수이자 유능한 상담가이다. 저서로는 '위기의 십대 기회의 십대'(Age of Opportunity),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죽이는 말'(War of Words, 이상 디모테) 외에도 다수가 있다.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월-토)  
저녁 오후 7:30(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3119W.6th, LA, CA 90020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영아예배**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 오전 6:30(말-금)  
오전 10:30(수) 오전 6:30(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김성광**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경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최운형** 담임목사

**세계선교회**  
하나님의교회, 사랑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17,21,27,31기 수료생배출, 현재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를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기구나인산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박승부** 장로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 미켓 투) T. (213) 381-7273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함은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너전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담**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6: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금)  
오전 7:30(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교회, 성경적요노아, 만민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개우고 이만21세를목양하며, 이만21세를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화평이 있으며 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개우고 이만21세를목양하며, 이만21세를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 영국 정부 “종교계 사학 동성애 입장 조사” 왜?

#### 동성애 관련 권리 침해 가능성 높

영국 정부가 최근 종교계 사립학교와 이들의 성 정체성에 대한 관점을 조사하려는 데 대해, 한 사회학자가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런던에서 16세 이상 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 JFS Sixth Form Centre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닐 데이브포트(Neil Davenport)는, 최근 spiked-online.com에 “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다.

그는 칼럼에서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세속적 사회에서, 영국 정치인들과 운동가들이 종교 학교에서 가르치는 가치들에 쓸데없는 참견을 하는 것은 분노할 만한 일이다. 종교 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은 놀랄 정도로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편협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데이브포트는 계속해서 ‘반동성애’ 커리큘럼과 관련해 종교계 사립학교를 조사하는 행위가 어떻게 ‘부모의 자주권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정부는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성과 관계성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사실상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운동가들은 학부모가 준비한 도시락의 영양 성분에 대한 정책이 만족하지 않고, 학부모가 선택한 수업의 도덕적인 내용까지도 검열받고, 심지어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영국인본주의협회(British Human-

ist Association)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영국의 약 19개 학교가 교과과정에서 반동성애적인 언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주로 종교계 사립학교가 동성애를 권장하는 자료들을 금지했던 1980년대의 교육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척션28’로 불리는 이 교재는 지난 2003년 토니 블러어의 노동당 정부 시절에 교체됐다. 영국에서 다양한 기독교 교회들이 세운 ‘신앙 학교(faith school)’는 제3학교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영국 교육부 대변인은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종교계 사립학교들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인본주의협회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파반 달리와(Pavan Dhaliwa)는 “우리는 종교계 사립학교들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러한 학교의 정책들은 반드시 속히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그들의 성적 정체성 혹은 성별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데이브포트는 “현대 사회는 이러한 소수자들의 의견을 견제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자유로운 사회는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관점, 편견, 그리고 판단을 단속의 요소나 공식적인 조사 없이 허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한다”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한 로비스트들이 한때 자신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던 수단인 검열을 요구할 만큼, 소수자들의 오래된 관점을 두려워하게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이드 아브디니 목사의 석방을 요청하고, 그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이브사이드.org' 사이트.

####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ACLU와 아브디니 목사의 아내인 나흐메(Naghme)는 국제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등 그의 석방을 요청해 왔다. 또한 이들은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과 전 세계 620,000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세클로우 사무총장은 아브디니 목사가 예반교도소 내에서 추가적인 구타와 학대를 당할 경우, 그의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세클로우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우리 가족들은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란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회미션교회

##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양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백성현** 목사, **백석영** 목사  
베이나 및 수양관 사용  
여러문의 환영

**주의사랑 선교 수양관**  
아버지의 마음과 신부의 영성 교육센터  
11373 Oasis Rd. Pinon Hills, CA 92372  
T. (714) 932-8993, (760) 868-858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창신년부 오전 11:00  
유년/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사우스 베이 지역

**정성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4

EM 1부 9:45 / 2부 11:45  
중/고등부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홍장로교회**  
망angka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문명(通)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무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수일)  
오후 12:00 (분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후 6:30 (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 남가주 자마대회 앞두고 한어권 청년사역자 한 자리에



남가주지역 자마대회를 위한 한어권 청년사역자 제 2차 준비모임이 22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한 사역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한기홍 목사가 권면하고 있다.

남가주지역 자마(JAMA)대회를 앞두고 청년사역자 2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자마 부대표 강순영 목사는 오는 11월 8-11일 풀러튼에 위치한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자마대회에 영어권 2500명, 부모세대 1500명을 비롯해 한어권 청년 500명 참석을 목표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어권 대회를 따로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강순영 목사는 “장차 한인교회를 이어갈 주역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청년세대이다”며 “따라서 한어권 청년세대의 부흥은 현 미주 한인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마다 30대 중심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인교회는 조만간 고령화되고 말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 리더십을 세워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가주 한어권 청년사역자들은 대회를 위해 지난달 11일 모여 제1차 준비모임을 가진 데 이어 지난 22일 은혜한인교회에서 제 2차 준비모임을 가졌다.

한편 이번 대회 강사에는 김준근 교수, 권준 목사, 박수용 장로, 제이 박 목사를 비롯해 CCM 가수 소환이 나서며 이밖에 분야별 전문가들이 전하는 선택세미나가 마련된다.

정한나 기자

## 소망소사이어티 “시신기증, 이렇게 하세요”



비영리재단 소망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시신기증 세미나가 지난 19일 열렸다.

비영리재단 소망소사이어티(유부자 이사장)가 지난 19일 나성동산교회에서 UC어바인 시신기증 프로그램 디렉터인 마크 브룩스(Mark Brooks)와 UCLA 시신기증 프로그램 스페셜리스트인 트레비스 시엠스(Travis Siems)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시신기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소망소사이어티는 또 그간 시신기증 신청에 불편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기증서류의 분실 및 위증을 줄이고자 직접 서류를 접수받아 UC어바인에 전달하기로 했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시신기증 프로그램은 에이즈(HIV)나 B/C

형 간염(Hep B or C)과 같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양로원 등 시설에서 도움받고 있는 환자도 가족의 동의를 통해 시신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UC어바인과 UCLA 시신기증 프로그램을 통해 신하거나 각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프린트할 수 있다. UC어바인은 이미 한국어로 된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며 UCLA는 현재 다국어 신청서를 준비 중에 있다. 영어가 불편한 경우 소망 소사이어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562) 977-4580

## ‘성경 66권 3박4일 완독’ 집회 열린다

미주요한선교단(안성기 목사)이 주최하는 ‘성경 66권 3박4일 완독’ 집회가 갯스윌연합교회에서 열린다. 내달 2일 오전 10시부터 5일 저녁까지다.

미주에서 50번째로 열리는 이번 집회 주감사에는 안성기 목사를 비롯 김동원 목사(힐리웃호순장로교회), 이희철 목사(갯스윌연합교회), 한명구 목사(중국 사전선 선교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선교단 측은 “3박4일간 신구약 66권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할 수 있다. 성경 읽기가 재미있고, 말씀을 암송하고 싶어지게 되고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이라며 “이를 통해 신앙생활

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성경통독 세미나(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암송 세미나(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등으로 구성된다. 교역자 및 선교사를 비롯 말씀을 사모하는 자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참가비는 숙식비 포함 1인당 70불이다. 준비물은 성경책과 찬송가,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이다. 등록은 9월 2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된다.

▷갯스윌연합교회 주소: 904 East D st Ontario, CA 91764 ▷문의: (909) 983-0994

## » 기사 1면으로부터 받음

회고사를 전한 유백열 장로는 “24년 전에 3대 담임목사로 오셔서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엇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다”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3부 송정명 목사의 저서 “우리 함께 걸어행복한 그 길” 출판기념 감사 음악회는 사회 노형건 선교사, 헌정사 전정례 권사(글로벌메시여성합창단 단장), 서평 민중기 목사(충현선교회), 답사 송정명 목사, 광고 최창진 장로(준비위원장), 축도 임동선 목사(동양선교회 원로목사) 순으로 열렸으며, 중창 월드미션중앙단, 합창 미주평안교회 연합찬양대, 오페라 캘리포니아소년소녀합창단, 글로벌메시여성합창단, 독창 노형건 선교사가 참여해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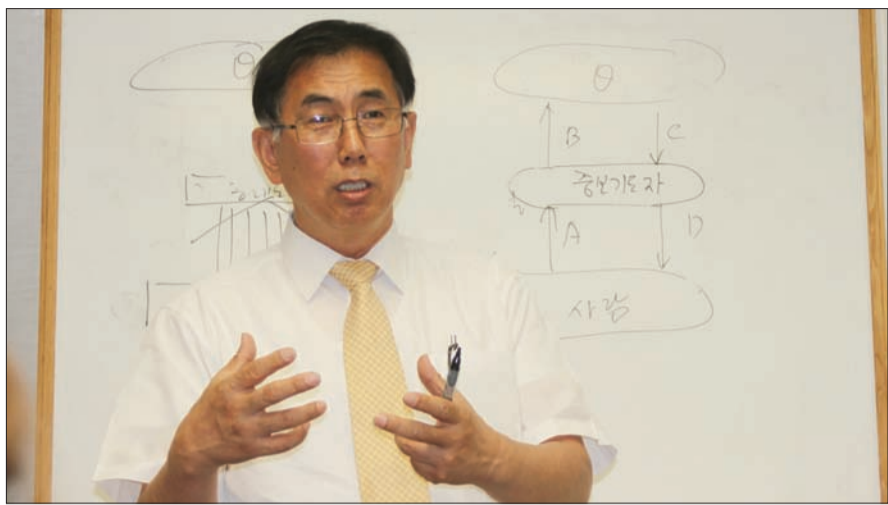
민중기 목사는 서평을 하는 자리에서 “삶과 성공적인 목회사역을 통해서 이 책을 더 귀하게 한 것 같다”며 “목회를 하면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송 목사는 기도사역과 목양사역, 커뮤니티사역을 구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꾸준히 펼친 것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역을 펼치셨다”고 밝혔다.

이날 송정명 목사는 주디 추 민주당 하원 의원, 에드워드 비대우리(LA카운티 정신건강)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송 목사의 저서 “우리 함께 걸어행복한 그 길”은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이민 목회현장의 뒷안길과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송 목사의 진솔한 이야기, 선교지에서 쓴 선교기행문이 실려 있다. 송정명 목사는 현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미주성서화운동본부 LA 대표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중보기도 세미나



이름다운교회 고승희 목사가 본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중보기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기도에 대해 배우는 '중보기도 세미나'가 지난 23일 오전 본보 사무실에서 열렸다. 강사로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가 나섰다. 고승희 목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중보기도

의 개념에 대해 ▷결렬된 중에 드리는 기도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 ▷택하신 자의 기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기도 ▷망울 고치는 기도 ▷영적 전쟁으로서의 중보기도 등 15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했다.



Seeds of Worship 소년소녀 찬양울동팀이 올해로 3년째 뮤지컬 정기공연을 계속해 오고 있다.

내달 중순 하나교회서 공연  
현재 단원 모집 중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씨드오브 워십(Seeds of Worship, 이하 SOW 소년소녀 찬양울동팀)이 올해로 3년째 뮤지컬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2세 단원들을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SOW 소년소녀 찬양울동팀은 2013년 하반기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기독교 뮤지컬 <THE NEXT POP STAR> 공연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세상적인 팝스타(POP STAR)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자리나는 다음세대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을까"라는 컨셉으로 제작됐다.

지난 16일 감사한인교회, 나침반교회, 효사랑선교회 등지에서 작품을 선보인 데 이

어 내달 14일(토) 오전10시 부에나팍에 위치한 하나교회(7951 Commonwealth Ave.)에서 또 한차례 공연을 앞두고 있다. 9월 27일(금) 오후 7시30분에는 가디니아에 위치한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공연한다.

뮤지컬 한 관계자는 "자라나는 2세 어린 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석하면 더욱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SOW 소년소녀 찬양울동팀 에스더 박 디렉터는 "현재 뮤지컬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오디션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날짜 및 장소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3시이며 남가주빛내리교회(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이다. 이밖에 관련 문의는 에스더 박 디렉터에게 직접 연락하면 된다.

▷문의: (714) 904-8434 ▷페이스북:www.facebook.com/SowMinistry

선우권 목사, LA서 목회자세미나 연다

오는 10월 말 LA만나교회서

4번의 개척교회를 통해 4번의 부흥을 경험한 선우권 목사(세종은누리교회)가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2박 3일동안 LA만나교회(남강식 목사)에서 미주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세미나'를 연다. 세미나 주제는 △정체된 한인교회 부흥시키는 비결 △한인교회 장소 물색하는 방법 △한국교회 시작과 목회스타일 연구 △이스라엘 랍비의 설교 유형과 히브리 문화 설교 등이다.

한국 목회 시작과 목회스타일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개척하거나 부임할 의향이 있는 목회자를 위한 목회 스타일 연구와 그에 따른 목회방법론(자금 없이 개척하는 방법, 종교부지 구입안내, 대출과정, 상가운영, 건축방법)에 대해 소개된다. 또 향후 히브리 문화 설교 자료가 제공된다.

선우권 목사는 한국에서 11년간 개척 담임하던 수지제자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2012년 3월 18일 충남 세종시에 가서 다시 4번째 교회 개척을 시작했다.

선 목사는 "사임할 때 무일푼으로 나와 정 말 없는 가운데 또 시작을 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상가를 3군데로 늘리고 500명이 들어가는 종교 부지를 매입해 총리실 옆에

건축을 시작하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이 히브리문화와 영성이 겸비된 설교를 집중적으로 강제한 결과였다. 이스라엘 랍비가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까? 전통설교와 다른, 문화적이면서도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고 설교를 꼭 들어야하기에 멀리서도 알아서 찾아오는 신비하고 재밌는 목회가 시작된다. 히브리문화와 영성 메시지를 겸비할 수 있으면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도 설교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성설교를 잘해도 히브리문화에 대한 풍부한 설교 자료가 없기에 부흥이 안되는 것이다. 가능성을 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적을 이루기까지 물질도, 뒤에서 도와주는 이도 없었기에 강단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 한국에선 이 간증을 듣기 위해 목회자들이 세미나에 모여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선우권 목사는 전에 LA 충신교회를 개척해 10년 동안 목회를 한 바 있다.

등록은 자료 준비로 인해 미리 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카톡, 페이스북을 통해 가능하다. 페이스북에선 '선우권'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문의: (010) 2379-7938 (818) 434-1253(LA주예수산성교회 양수용 목사)  
▷이메일:sunwookwon@hanmail.net

전기료 무료... 각종 정부혜택 설명회 열린다

AmGreen Solutions이 오는 9월 7일(토) 오후 3-5시 LA기쁨의교회(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에서 정부혜택인 전기값을 안내도 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회사 측은 "다른 커뮤니티의 경우 이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전기값을 안내도 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가 아직 모르고 있는 각종 무료 정부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AmGreen Solutions는 신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개발회사다.

▷문의: (213) 434-2834(테드 서)

박창민 기자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30  
3부예배 오후 12: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2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찬양부 오전 9:00/11:00  
한아태평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여지는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Puente)  
TEL:562-691-0691. FAX:562-691-0698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박용덕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예배 오후 8:0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 재래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남가주 잠실교회**  
영혼을구원하여 제자로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el: 562)802-4959, Cell: 714)308-7038  
E-mail:usa8291@gmail.com

**김민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7:00  
EM/영아예배 오후 12: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금요강해예배 오후 7:30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4부예배 오후 1:00 **손인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30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방익수 담임목사**  
중, 고등부 오후 3시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3시 한국교회 (토) 오전 10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성숙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T. (949)654-0191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삼선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분당)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10:00(미리클렌드)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1:55 (미리클렌드)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미리클렌드: 1571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미리켓 건너편)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분당)  
T.562-677-7777, F.562-677-7778/ilovepcp.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한중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6:00  
3부예배 오전 11:30 열린예배 (수) 오후 7:30  
4부예배 오후 1:30 성령강림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T. (949)857-9425 / F.(949)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수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김삼도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949) 305-3951

주일예배: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화-금) **지 사론 담임목사**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강림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살아있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되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예배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아태평양예배 오전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월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 오전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croc.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주일목상예배 오후 2:30 목요 성경학교 오후 7:30  
월요 선교학교 오후 7:30 금요침야예배 오후 8:0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토요 EM예배 오후 7:30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유하는 성직의 사람들"이 되자 **박세록 대표**  
www.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캐미버 tv 초고속인터넷,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 확장 이전 기념 세일!

100불 이상 구입시마다 **미네랄 회색 바다 소금 1파운드 (16온스-40불상당)** **무료**

확장기념으로 특별한 상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연산이나 소금을 100불이상 구입시 마다 **Sea of Cortez 무공해 천연 미네랄 회색 바다소금을 1파운드(16온스 - 시판가 40불)**를 증정하며, 200불 이상 구매 고객분들께는 **산삼 한 뿌리도 증정합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프로모션 A** \$280 **\$100** No Tax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프로모션 B** \$270 **\$100** No Tax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프로모션 C** \$28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율 보장

###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쓰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할.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다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잠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올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컸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로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이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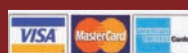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니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융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 HQ Health, Inc. / HQ 산삼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 L. A. 본 점 (213)365-2100

##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 Life

이스라엘 탐방

## 유대 광야 수도사들의 음식: 빵 (2)

채식을 하는 수도사들에게는 날 것(raw)이나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였다. 제라시무스 수도원에서 시리아(Cyriac)이 맡았던 일의 하나는 채소를 씻는 것이었다. 안토니 코지바의 기록에 따르면, 코지바 수도원은 수도사들과 방문객들에게 채소와 콩(pulse)을 제공하였다.

콩(pulse)은 팔레스틴에 거하는 주민들과 수도사들의 주요 양식이었다. 콩은 광야 기후에서 재배와 저장이 쉬우므로 수도사들의 양식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피란 수도원에 속한 한 수도사는 해마다 칼라몬 라우아에 있는 친구를 방문할 때마다 빵과 콩(soaked pulse)을 가져왔다고 기록했다.

콩 외에 수도사들이 섭취한 또 다른 양식 중에 피사리온(pisaron)이 있다. 피사리온은 완두콩(peas)일 것이다. 다른 종류의 콩(carobs)도 섭취했고 종려나무 열매도 취하였다. 이런 열매들은 장시간 저장이 가능하며, 수도사들의 양식에 포함되었다.

사바스의 사망 후 수도사들은 사바스가 거했던 작은 굴(cell)에서 말린 콩(dried carobs)과 종려나무 열매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사바스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콩과 종려나무 열매만 섭취했음을 의미한다. 테오그니우스는 오직 빵과 몇 알의 콩만 먹고 경건 생활에 집중했다. 그리고 제라시무스 라우라에서 수도사들에게 제공된

양식은 빵과 약간의 종려나무 열매였다. 종려나무는 광야 기후에서 생근처에서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었다. 칼라몬 라우라에서는 종려나무의 열매와 줄기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기도 했다.

유대 광야의 수도사들이 재배했던 식물 중에는 무화과 나무도 있다. 시릴의 이야기 중에 존 헤시체스트(John Hesychast)의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이를 증명한다.

“경건한 장로(John Hesychast)가 머문 장소는 거친 암벽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그곳은 작은 굴의 지붕을 받치고... 어느 날 이 경건한 장로는 마른 무화과 나무 씨앗을 한 개 취하여... 상하지 않은 벽에 회칠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씨이 나도록 벽과 바위에 명하셨다. ...노인은 벽에서 씨이 난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렸다. 무화과 씨는 점점 자라 지붕에 닿았고 굴 전체를 덮었다. 마침내 그것은 열매 세 개를 맺었다. 노인은 무화과 열매들을 취하여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고... 그 무화과를 먹고 남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유대 광야의 수도사들은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았다. 병든 수도사들에게 고기와 생선이 제공된 기록은 있지만, 일반 수도사들에게는 금지되었다. 생선은 가난한 자들이 구할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다. 비록 소금에 절인 생



마르 사바 수도원의 감람나무 그늘 밑에서 성경을 읽는 여인들의 모습이다.

선일지라도 광야의 더위에 생선과 고기를 보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포도주와 감람유는 코노비아 수도사들 뿐 아니라 작은 동굴에서 수도하는 수도사들에게도 중요했다. 그러나 일부 엄격한 금욕주의 수도사들은 포도주나 감람유를 절제의 상징으로 이해하여 금지하기도 하였다. 포도주와 감람유 짜는 틀은 많은 수도원들, 특히 광야에 인접한 수도원에서도 발견된다.

팔레스틴에서 포도 재배는 일반적이었다. 심지어 수도원에서도 포도를 재배하였다. 예리코의 서쪽 두카 수도원 출신의 팔라디우스는 자신의 저서(Historia Lausiaca)에서 기록하기를, 바위 틈새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 교회를 덮었다고 기록하였

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와 수도원의 그늘 쉼터로도 좋았다.

포도주와 감람유는 수도원 방문객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되기도 했다. 코지바 수도원에서 조지가 행했던 기적을 참고하면, 창고에 있는 큰 통의 기름을 세 주간 사용했는데도 여전히 통에는 기름이 가득하였다. 포도주에 대한 이런 기록도 있다. “사바스가 여리고에 있는 대 라우라의 숙소를 방문했을 때이다. 저녁 식사에 한 중요한 손님을 만나 포도주를 요청했지만, 수도원에는 남아 있는 포도주가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식초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 식탁에는 포도주가 아닌 식초가 준비되었다. 사바스는 식초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랬더니 식초가 변하여 포도주

가 되었다.”

물과 포도주 외에 수도사들은 유크라티온(eukration/ mixture)을 마셨다. 유크라티온은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일종의 허브 차(pepper, cumin, anise)이다. 뜨거운 물은 추운 겨울이나 사막의 밤 추위에 대비하여 수도사들에게 중요한 음료수였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다. “제라시무스 수도원에 속한 은둔자들이 제라시무스에게 ‘우리에게 뜨거운 물과 요리된 음식을 주고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제라시무스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유크라티온과 조리된 음식과 등잔 밑에서 성경 읽는 것을 원한다면, 차라리 코노비움에 거하는 것이 낫다’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전 9:27)

### 이주섭 목사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에듀/두루문화원) 고문  
현)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 지리학과 교수  
현)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를 수학

### [독자 신앙간증] 주는 정 받는 정

## 눈물 흘리던 옛장사

거지란 본디 밑바닥 생활을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잘 살다가도 전쟁에 휘말려 나라가 망하고 의지할 곳이 없으면 누구나 거지 신세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피난민 시절 절실히 실감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음이 라(신명기 10:19)”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와 대한민국 중앙청에서 봉사하게 됐고 남부럽지 않은 직책을 받아 6.25 참전명예 수당도 받고 정년퇴직하게 됐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다.

9.28 수복 후 하루는 어떤 나그네 한 사람이 집에 찾아와 커다란 옛

물чи 한봉지를 내놓으며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나는 “아니, 누구신데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냐”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어느 추운 겨울날, 맥으로부터 파스한 온정을 받은 거지입니다. 춥고 배가 고파 맥의 문을 열고 구걸했었지요.

당연히 매나 안 맞고 쫓겨나면 다행이려니 생각하던 차에 맥의 마나 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거지였던 제게 ‘밖은 추우니 들어오라’며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고 뜨거운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밥을 먹은 기억보다 고마움에 눈물을 흘리며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남가주살림교회 박영찬 장로

생생하답니다.”

연신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는 “그 후 몸도 건강해지고 다소 밀წ도 모여 옛장사를 시작했는데, 오늘 마침 이곳을 지나가다 옛 온정이 생각나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고 말했다.

이에 나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마음씨를 계시니 당연 교회에도 나가시겠지요?”하고 물었다. 그는 “글

썬요. 아직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은 당신 같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삼고 교회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아들로 삼으시고 제가 배운 사랑보다 1만배나 크고 깊은 사랑으로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테니까요.

나는 일곱살 때부터 유년주일학교에 다니며 예수를 믿었습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전쟁을 겪으며 모진 고난을 받았으나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구사일생으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 후 무사히 고

향에 돌아와 지금은 직장을 다니며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피난민 시절 우리 식구들에게 파스한 온정을 베풀었던 고마운 노인 한 분이 계신데,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그분을 찾아 은혜를 갚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니 참 반갑군요.”

이렇게 말하며 그의 손을 잡으니 급기야 “나도 어른께서 믿으시는 그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이에 나는 그분의 장래를 위해 같이 기도 드리고 저녁식사 후 가지고 온 옛봉지 값으로 얼마간의 금전을 그의 주머니에 넣어주고 작별했다.



### 장재효목사의 반세기목회와 선교확장 보고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롬 14:8)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에게 쓰임받은 진실되고 충성스런 종의 고백은, 언제나 내가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주님께 쓰임받은 결과,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과뿐이더라!”

장재효 지음

진실로 바른 목회를 열망하며 책임목회의 사명의지로 더 많은 구령성과를 위해 받은 바 주님의 은혜보답과 맡기신 사역의 영적성과를 위해 진총간력하시는 목회자라면 이 책을 탐독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시대에 요긴하고 더욱 힘있게 쓰임받을 유능한 사역자가 되게 하실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이 책을 구입 탐독하실 때 영적신앙과 사역에 성령님께서 인도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책값으로 지불하신 10불은 한,미간 탁송운임과 구독자에게 배송 우편비로 사용될 뿐, 책값은 무료로 국제성은복음선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입문의 : 213.739.0403



# “Who Else?”

### LA사랑의교회 청소년 공립 대안고등학교의 시작

미국내 공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동성에 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반기독교 교육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보장되지 않는 기대보다 이제 교회가 적극 나서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남가주 일원을 중심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차세대 새개념 대안학교’를 설립해 성공리에 운영 중인 교육전문가들의 글을 연재한다. 다음은 그 세 번째 순서로 LA사랑의교회 청소년 공립 대안고등학교 학교운영책임자 이재영 실장의 글이다. <편집자 주>

“저는 9학년까지만 해도 성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의 유혹에 넘어가 지난 몇 년 동안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서도 항상 저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는 듯하였습니다. LASR Charter School에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온 이후로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히 갇혀있을 것만 같았던 내 삶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 Vanya Romo”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온종일 학교에서 웃는 일뿐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즐겁거나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 그저 상대방을 향해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은 것 이민 온 저로서는 도저히 따라 갈 수 없었고 학교에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의 고등학교 생활은 졸업도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이 나 버렸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잃었다는 생각보다 이제 더는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LASR Charter School은 나에게 새로운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 Jenny Kim

5년 전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시작할 때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왜 이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늘 입술의 기도와 찬송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했지만 5년 전 우리의 모습과 여건은 학교라는 거대한 사역을 출범시키기에는 개척 1년 차의 교회

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 때에 시작한 위험천만한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

2006년 12월 24일, 한인타운 6가와 라파에트 코너의 작은 상가 오피스 건물 한 편을 빌려 교회가 개척되었다. 당시 김기섭 담임목사는 LA사랑의교회 개척비전을 다음 세대 신앙계승을 위해 세운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다음 세대 신앙계승이라는 말이 자칫 모호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교회가 나가야 할 분명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실천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LA사랑의교회는 차세대 목회자 지도자 양성을 위한 MTS-Ministry Training School을 세우고 학원사역을 위한 Campus Ministry 그리고 이민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K-12 기독교 기숙학교 운영을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교회 개척 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결실하게 성장하였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지역사회에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여러 교회도 방문해 보고 각 단체 선교팀들과 의논도 나누며 귀한 사역들도 소개받고 동참하는 기회도 얻었다. 그러나 오랜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커뮤니티를 위해 중박된 사역을 또 시작하기보다 이미 훌륭하게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을 더 돕고 동참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하지만, 누구도 하지 않고 있는 사역을 주시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뒤, 2007년 11월, 난우연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하심에 따라, 한 비영리단체가 주최한 커뮤니티 발전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온종일 진행된 행사에서 커뮤니티를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들과 발문터어들과 그리고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들이 오고 갔다. 그중 가장 큰 이슈는 청소년들에 관한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탈선으로 인한 범죄 증가와 고등학교 자퇴와 퇴학 그리고 낮아지는 졸업률로 인해 청소년들이 심각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교회와 단체들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다시 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얼핏 들으면 마치 타민족 청소년들과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일컫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 한인타운의 이야기였고, 우리 한인 이민자 가족의 이



**이재영 실장**  
LA사랑의교회 공립 대안고등학교

야기였다. 나에게만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체면 문화에 익숙한 한인들에게는 애써 들어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외국인들과 전문가들의 눈에는 한인 청소년들은 분명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민 교회 목회자들의 교인 심방이나 상담을 통해 쉽게 드러난다.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또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로 인해 고통받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다.

부모들 역시 마음만 간절할 뿐 어떻게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분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200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LA통합교육구 산하 고등학교 졸업률이 59%임을 참작한다면 10명의 청소년 가운데 4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는 말인데 이것은 한인

가정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여기에 갓 이민 온 자녀들의 영어 미숙과 문화차이로 인해 아예 고등학교 졸업을 포기한 숫자까지 포함한다면 한인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의 평균 졸업률 수치는 훨씬 낮을 것이다.

또한, 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2008년 겨울에 불어닥친 경제공황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된 사실이다. 한국에서 부모들이 보내준 학비로 사립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를 잘 다니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불체자의 신분으로, 사립학교에서 쫓겨나와 오고 갈 때 없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갑자기 뒤바뀐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학교의 현장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겪었을 자존심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아픔을 보게 된다.

부모들의 경제난으로 한국어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반강제적 자퇴 후에

갑자기 길거리로 내몰린 우리 자녀들이 겪었을 그 고통은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

이처럼 가정 형편이나 문화적 충격, 신분 문제, 영어 미숙으로 인해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했거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잠시의 실수로 인해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소외된 아이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웃 가운데 있다. 모든 이민자 가정의 바람대로 자녀들이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실은 그렇지 않다. 이민자들은 자녀들 때문에 이민을 왔다고 강조하면서도 삶의 현실적 문제 앞에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과 반복되는 일상, 그리고 하루의 쉼조차 허락되지 않는 이민의 현장에서 자녀들의 학교 문제나 일상의 생활까지 감당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에서 그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존의 현장에서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이민자들에게 자녀 교육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영어라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일도 쉽지 않으리니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 시스템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일은 더욱 묘연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돕고 싶지만 도울 수 없는 부모의 심정과 마음은 얼마나 더 찢어질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나는 학교의 현장에서 우리 이민자 부모들의 멈추지 않는 눈물을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다. 누구의 책임이나를 따지기 전에 좀 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일은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누가 해야만 할까? 정답은 이민 교회다.

이민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관한 비전이 없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그만큼 다음 세대는 이민 교회의 존폐를 가능할 정도로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오게 할지에 대한 방법과 대안 그리고 생각은 모두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가 품어야 할 다음 세대에는 성실한 엘리트 세

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 밖에 남아있는 소외된 아이들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들도 이민교회가 반드시 끌어안고 가야 할 다음 세대의 한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훌쩍 넘어선 우리 이민 역사의 현장에는 이들을 위한 그 어떠한 사회적 장치나 배려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들을 위한 학교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이민사회의 현실이다.

그저 모든 아이가 정형화된 교육 시스템 안에서 잘 버티 줄 것이라는 바람과 다 잘 될 것이라는 부모들의 순진한 생각이 우리의 아이들을 더욱 더 고통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작된 낯선 땅 미국 사회에서 지친 우리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또한 잠시의 실수와 판단의 착오로 낯선 길로 들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2세 자녀들에게 이제 누군가 손을 내밀어 그들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주어야 하는 일을 해야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으리라 확신했다.

LA사랑의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부르심 앞에 그 틈새를 메꾸고자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다. 이민 가정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을 통해 이민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우리 교회의 개척 비전과 같이 다음 세대 신앙 계승과 학교 사역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내 곧 마음이 급해졌다. 자녀들의 교육은 Timing을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2008년 2월, 청소년들을 위한 공립대안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된다. <계속>

글=이재영 LA사랑의교회 공립 대안고등학교 학교운영책임자

▷ 웹사이트: www.LAsarang.com  
▷ 학교주소: 520 S. La Fayette Park Place #453, Los Angeles CA 90057  
▷ 학교전화: (213) 385-5358  
▷ 한국어 상담 및 문의전화: (714) 720-5113/이재영 디렉터

##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팩스 : (213) 402 - 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성경 쉽게 읽는 방법 바로 “여기!”

# 성경통독의 길잡이 **썩 난 지팡이**

성도들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신년목표로 빠지지 않고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통독’ 특히 평신도들에게 방대한 분량에 내용도 쉽지 않아서 성경한권을 다 읽기는 만만치 않다. LA사랑의빛선교교회 이학진 장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통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길라잡이 <썩 난 지팡이>를 펴냈다.

“지난 18년간 교회 구역예배에서 말씀 인도자로 사역하면서 평신도들로부터 성경읽기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말씀 읽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만들게 됐습니다.”

이 책은 구약성경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로 나뉘고, 신약성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과 예언서로 나뉘었다.

이 책은 성경을 주제와 흐름 중심으로 연대순으로 구성해 각 단락의 중요 구절을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쉽게 머리와 가슴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구입문의:(213)434-0033(이학진 장로), (323)766-8793~5(JOY 기독교백화점)

구입처:JOY 기독교백화점(3170 W. Olympic Blvd, #E, Los Angeles, CA 90006)



이학진 지음





이상명 목사의 성서로 문화 읽기

뛰어난 개인, 무너지는 공동체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현대 사회에서 '개인주의'라는 단어처럼 매력적이면서도 동시에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 되는 단어도 없을 것이다. 개인주의는 서구 사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화적 코드다. 이 개인주의는 서구화된 사회 속에서 그 맹위를 떨치면서 우리의 신앙조차도 원자화내지 무력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일 뿐이야",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는 말이 그런 말이다. 이러한 주장들 속에는 우리의 신앙 저변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과거에 비해 반기독교적 정서와 반복음적인 도전은 더욱 거세졌는데, 크리스천 공동체를 세우고 지키는 토대와 담배막은 도처에서 허물어지고 있다. 현대 기독교는 타종교와 비교해서도 그 공동체가 와해되는 속도는 보다 급격하고 광범위하다. 오히려 서구 사회 속에서 이슬람 세력은 확장되고 있다. 물론 그들의 출산을 통한 자연 증가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그

들의 단단한 결속도 그들의 공동체를 키우는데 크게 한몫을 하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기독교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면 개인주의를 들 수 있겠다.

개인주의의 정의와 역사

'개인'을 뜻하는 '인디비둠(individuum)'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생겨난 것은 중세였다. '개인주의'와 관련된 오랜 흔적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유명한 주장에서 찾을 수 있겠다. 소크라테스 이후, 철학의 관심 대상은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14~16세기 르네상스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의 아들로서 개인주의는 태어났다. 알랭 로랑은 그의 저서 《개인주의의 역사》에서 "개인주의"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개인주의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부작용과 폐단으로 점철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개인주의를 반사회적인 내향적 태도로 축소시키거나 폐쇄적 이기주의의 예찬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인 "스티브 윌킨스와 마크 샌포드는 자신들이 공저한 《은밀한 세계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개인주의는 적절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나의 특별한 관심과 목표를 최대한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개인주의가 추구하는 각 개인의 고유한 위험과 거룩함은 분명 소중한 것이다. 개인주의와 종종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사와 나아가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지

지를 보내는 것은 더군다나 아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교회와 집단과 국가가 개인을 구속하고 심지어 확대한 역사도 분명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인주의는 이러한 조직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태동한 사조이기도 하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개인주의는 개인을 우주의 가장 일차적 실재로 삼게 된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말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머물 수 있는 여백을 하나님 대신 인간 본위의 것(탐욕)으로 채우려 들 것이다. 우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허무한 현주소이고, 인류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 신앙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앞에서 로랑은 개인주의가 지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로랑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인간 개체 속에 파리를 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탐욕의 강한 본성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물질문명을 일으킨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연과 인간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맘몬을 세운 끔찍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맘몬의 강력한 힘에 편승한 물질만능주의는 개인을 보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개체라는 괴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개인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커녕, 위에 계신 하나님도 망각의 대상이 되고 만다. 개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는 나의 목적이 나의 수단을 정당화하고, 내가 내 실제의 중심임을 믿는 것

이고, 나 말고 다른 어느 누가 나의 목적과 방식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와 타인을 동일한 존재로 놓지 않게 되고, 내 가치와 삶의 방식이 타인의 것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성과 역량이 뛰어난 개인은 있을 수 있어도 공동체는 존속할 수 없다. 현대 교회가 그러하다. 자질과 역량이 뛰어난 구성원은 많지만, 그들을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하나로 묶는 공동체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복음의 정신을 향해 하나되게 하는 구심력보다 그것으로부터 끌어내 세속적 가치에 몰들게 하는 원심력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분에 의해 운행되는 우주에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우주를 꿈꾸는 이들로 사회가 채워질 때 혼란과 죽음의 문화가 판쳤다. 이러한 반복음적인 가치가 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만드셨고 이끄신 것은 제자 공동체였다. 로마 제국 안에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것은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대안공동체였던 가정교회였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것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였다. 도시마다 한 개에서 다섯 개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복음의 정신으로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었다. 1세기에 로마 제국 안에서 40~60여명씩 모이는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 무력으로 거짓 평화를 구축한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경하였다. 성서시대부터 지금까지 뛰어난 개인의 역할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 기댄 공동체의 토대 위에서 교회는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공동체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한 도전과 위협은 우는 사자9xx처럼 교회 중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서 공격하고 있다.

21세기의 가장 큰 위험, 기독교 공동체의 와해

교회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군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를 우리되게 한다. 개인주의가 이 땅에 만연한 것은 그것이 약한 본성과 쉽게 결탁하는 취약함 때문일 것이다. 개인은 탐욕에 쉽게 물들고, 개인주의는 그 탐욕에 눈멀어 무신적(無神的)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사조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올 때, 교회의 공동체성은 무너지고 만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와해되기 때문이다. 탐욕의 상징인 자신의 '배(belly)'를 자신의 신(神)으로 삼고, 땅의 일반 생각하는 경향은 1세기 교회만의 형편이 아니라 현대 교회의 위태로운 정세이기도 하다(빌 3:19). 공동체는 가장 작은 자들을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자란다(마 25:25-46).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21세기의 거친 격랑을 헤치며 나갈 동력 없는 선박과도 같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를 크리스천의 확고한 정체성 위에 더욱 탄탄히 세워야 할 때이다. 그리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보수해야 할 때이다.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역사도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사람이 불조심을 못해서 온 산이 불에 타버

리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가 그 이유를 알아보니 한 사단 병력이 늦게 도착해서 작전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이 드러났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단을 조사해보았더니 한 대대병력이 늦었기 때문에 출동이 늦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대대가 늦은 이유는 한 소대병력이 늦었기 때문이었고, 그 소대는 한 명의 소대원이 늦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한 명의 군인이 늦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살리는 쪽과 죽이는 쪽, 어느 쪽에 속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만약 내가 살리는 쪽의 한 사람이 되려면 절망적 상황에서도 꿈을 갖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유리하거나 환경이 좋으면 모두가 다 잘 할 수 있는 때이지 한 사람이 간절히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아무도 하

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긍정적인 한 사람이 간절히 필요한 법입니다. 갑자기 라디오나 TV에 현현할 한 사람을 찾는 방송이 나오는 것은 상황이 절망적일 때이지 좋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긍정 바이러스는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자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자녀들일수록 불평이 많고, 반대로 달동네에서 고생하는 부모와 함께 어렵게 자란 아이들이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거나, 고생하는 단기선교 같은 곳을 다녀오고 나면 오히려 더 긍정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관련 업계 12위로 출발해서 10년 만에 매출 10조 원대를 기록하며 연 평균 매출 성장률 47%, 이익 성장률 17%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할인점이 된 기업인 홈플러스입니다. 이 그룹 이승한 회장은 그가 쓴 책 '창조 바이러스

H2C'에서 성공 비결을 '창조경영'이라고 했는데, 마음에 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하다'라는 소리쯤은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명도 대부분 처음에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결국은 현실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켰다." 살리는 새 역사를 만드는 한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세상이 타락했다. 교회가 타락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 일은 절대 안 된다. 그곳에서는 안 된다.' 등등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오히려 '나 한 사람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남의 타락과 잘못만을 보지 않고, 내가 쓰임 받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

해야 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이 제복을 입으면 강해지는 것처럼, 성도는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옷을 입어야 강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의 캘리포니아는 미국 영적 타락의 선봉장과 같습니다. 주민의 52%가 찬성한 주민 발의안도 동성애 법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동성애를 포용 안 하면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법이 상원을 27:9로 통과하고 하원의 세무위원회까지 통과했습니다.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만 남겨 놓았는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의 패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의 옷을 입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람!

**미주 제 50차 성경완독집회**  
2013년 9월 2일-5일

**3박4일**

**성경 66권 완독**

신구약 66권 전권을 3박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 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p>주강사 안성기 목사  미주요한선교단 대표</p> <p>강사 이희철 목사  갯스윌연합교회 담임</p>	<p>강사 김동원 목사  할리웃호순장로교회 담임</p> <p>강사 한영구 목사  중국사천성 선교사</p>
--	--

교회 찾아오시는 길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일시** 2013년 9월 2일(월)-5일(목)

**장소**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909.983.0994 / Cell: 909.268.4279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Tel: 708.307.8280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등록** 9월 2일 당일 오전 9시 - 10시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개회예배** 9월 2일 오전 10:00

**수료식** 9월 5일 오후 6:00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암송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닥터의 건강생활 모범

주최: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 후원: 갯스윌 연합교회, 크리스천헤럴드(라디오방송 AM 1650), 기독교일보, 인랜드지역목회자협의회, C&MA 서부지역회, 할리웃호순장로교회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추천

#### 뒷문 없는 교회 이야기

강정원 | DMI | 2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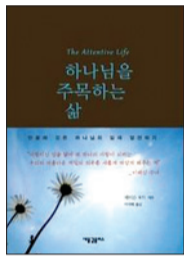
강정원 목사가 시무하는 만남의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불신자 회심 성장률'이다. 대부분 불신자였다가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된 교인들이 새가족으로 섬김을 받고 양육 과정을 거쳐 교회에 정착하고, 다시 성장 과정을 거쳐 평신도 사역자로 길러지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는 사이 성장한 교회 이야기이다.



####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레이튼 포드 | 이지혜 역 | 새물결플러스 | 340쪽

우리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분주함과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내면과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낸다. 그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여정은 '주목'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 그 여정을 시작하자고 격려한다. 우리는 각자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



#### 잊혀진 은혜

조셉 프린스 | 정성목 역 | 두란노 | 2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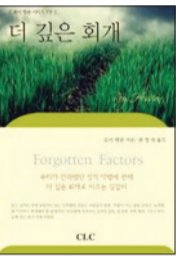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크게 부흥한 싱가포르 뉴크리에이션교회 조셉 프린스 목사의 저서로,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이라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정작 성도들의 실제 삶에서 싸구려 취급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대신 여전히 내 힘과 노력으로 산다는 것.



#### 더 깊은 회개

로이 헛슨 | 최정숙 역 | CLC | 200쪽

로이 헛슨 시리즈의 일곱 번째 책으로, 저자는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가 범하는 성적 악행의 본질적 양상을 면밀하게 파헤친 후 죄의 해결책을 명백하게 제시한다. 간음, 행음, 동성애 등 여러 성적 죄악이 세계적 이슈인 현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내용이다. 저자는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 근본적인 잘못된 회개를 바란다.



## REVIEW

### 예수는 폭력을 거부했지만... 이 시대 기독교는 어떠한가

최근 소개한 '복음전도와 사회운동'을 비롯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이상 IVP)',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홍성사)' 등을 쓴 로날드 사이더(Ronald J. Sider)의 신간 '그리스도와 폭력(대장간)'이 출간됐다.

저자 로날드 사이더는 예수께서 1세기 당시 다른 '거짓 메시아'들과 달리 '폭력적 검(violent sword)'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suffering servant)'의 모습으로 자신의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기로 선택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칼의 사용을 거부했음을 상기시킨다.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200년 이상 이방 정복자들의 압제에 폭력적 봉기로 맞섰던 백성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전대미문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당신의 왕국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제한된 범주를 넘어서야 한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 절정이 바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죽음 중 가장 비참했던, '십자가형'이었다.

로날드 사이더는 이후 "이 시대의 비극은 그리스도의 대리적 십자가에 대한 성서적 이해를 수용하는 많은 사람이 전쟁과 폭력의 문제에 대해선 십자가의 직접적 함의(implication)를 간과한다는 데 있다"며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폭력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



그리스도와 폭력  
로날드 사이더 | 전남식 역 | 대장간 | 144쪽

여하는 삶'을 꿈꾸며, 그가 여러 저서에서 부르짖던 '구조적 불의'를 넘어 불의와 전쟁, 파괴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교회가 영광스럽고 소중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를 염원한다.

그러나 간과해선 안 되는 또다른 비극은 "평화주의와 비폭력을 강조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 안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폭력의 근거를 육신이 되신 말씀(그리스도)이 감당하신 대리적 십자가에 두지 않고, 다만 그 분을 진리와 평화를 위해 고귀하게 순교한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라는 나약한 감상주의에 두려는 시도는 속죄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단사실에 불과하다."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 세종 송보감

“충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세종 요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겉술로 만든 발효삼상”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http://www.sejongbiotech.us)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4층)

## 세리토스현대 CERRITOS HYUNDAI

###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CERRITOSHYUNDAI.COM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9월4일까지입니다.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HYUNDAI Assurance**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18818 Studebaker Rd  
Cerritos, CA 90703

Tel. 562.900.2399



신간

‘페이스북의 5대 영성’ 과 ‘책임지지 않는 친밀함’

미디어를 금식까지 해야 하는 시대, ‘정주하는 삶’ 의 의미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된 여러 SNS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트위터(twitter)와 페이스북(Facebook)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어느새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SNS는 중동에서 민주화를 이끌어내기도 했고, 유명 인사들과 직접 대화나 소통이 가능해졌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는 인기의 척도가 되자 오래다. 기업들은 SNS를 이용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 있게 됐으며, SNS에 남긴 글들을 책으로 엮어내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그 중에는 기독교 도서도 몇 권 있다.

SNS를 포함해, 최근에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풍부한 ‘말의 성찬’들이 이뤄지고 있다. 언론 기사에는 무수한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은 기사와 댓글을 같이 읽는다. 또 블로그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관심사를 공유한 이들과 활발한 논쟁이나 토론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렇듯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포털사이트만 접속해도 ‘놓치 못할 일’이 없게 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온라인에서 토론하던 중 분을 못 이겨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직·간접적 영향으로 자살 사고가 발생했으며, SNS에서는 이러한 자살 소동이 생중계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편향되고 과편향된 정보들이 넘쳐나 사람들의 인식이 왜곡되고, 넘치는 소통 속에 오히려 ‘진정한 관계’의 욕구는 더욱 결핍으로 치달는다. 쏟아지는 말들이 때로는 ‘공해(公害)’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식욕의 절제를 넘어, ‘미디어’의 절제를 이야기

하기도 한다. 특히 사순절이 되면 즐기던 게임이나 TV 시청, 인터넷 접속, 스마트폰 사용 등을 자제하자는 ‘미디어 금식’ 문화가 생겨났다. 실제로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 ‘잠시 SNS를 떠나겠다’는 기독교인들의 고백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미디어 금식’도 결국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늘날의 ‘역설적 현실’이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그 ‘제목’ 때문에 관심을 끈 책이 바로 「페이스북 영성이 우리를 구원할까(홍성사)」이다. 저자는 ‘페이스북의 영성’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원하는 사람을 골라’ 친구 요청을 보내고 ②친구 요청은 ‘선별해서 허락’하며 ③‘알리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④‘내키는 대로’ 로그아웃하며 ⑤‘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현대 기술은 정작 ‘옆 사람’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쉽게 사귀어 만드는 기술’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기쁨과 책임을 빼앗는다. 저자는 “여러 면에서 우리는 연결돼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데, 우리 사회는 이처럼 책임지지 않는 친밀함을 ‘간통’이라 불렀다”고 진단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조화로운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고, 인간은 구체적 공동체에 접붙여야 생명을 지키며, 그 생명은 공동체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정주하여 이웃과 신실



페이스북 영성이 우리를 구원할까 조너선 윌슨하트그로브 | 최요한 역 | 홍성사 | 192쪽

리 둘 곳이 없다... (마 8:20)”, “네 소우를 팔아...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 19:21)” 등 수많은 말씀을 통해 ‘노마드(nomad)’를 지향해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던가.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IVP)」만 봐도, 아예 하나님에 대해 “방랑자를 편애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저자는 4세기 ‘수도원 영성’과 이를 따른 자신의 삶으로 답을 대신한다. 범 죄율이 아주 높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서 공동체를 조직해 ‘정주’하고 있는 저자는, 자신을 포함해 1700년 전 구도자들이 사막으로 떠난 이유는 새로운 곳에 “머무르기 위해서”였다고 답한다. 성경에서도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렘 29:5)”,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눅 8:39)” 등 ‘정주하는 삶’을 선물로 주시는 장면들이 있다.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설교만을 듣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과만 교제한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람들과 구체적인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시대정신의 노예’나 ‘맛집 순례객’을 벗어나, “늘 새로워지겠다는 고백”으로서 머무름을 선택하라고 권유한다. “정주하는 삶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달려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웃을 기꺼이 상대하고 피해선 안 된다.”

쿨한 것 강조되는 문화... 설 자리 잃어버린 ‘거룩’

케빈 드영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

‘거룩(Holiness)’에 구멍이 났다? 미국의 차세대 목회자로 주목받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지역교회를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이머징교회를 반대하는가(이상 부흥과개혁사)」 등을 쓴 케빈 드영(Kevin Deyoung) 목사의 주장이다.

지난해 ‘크리스챤너티투데이’ 올해의 책으로 뽑힌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The Hole in Our Holiness-생명의말씀사)」 속 내용은 올해 초 나온 「하나님의 거룩하심(지평서원)」을 읽는 듯하고, 책에서는 제임스 패커의 「거룩의 재발견(토기잡이)」이 자주 인용된다. 제목만 보면 3년 전 나온 리처드 스티븐스의 「구멍난 복음(홍성사)」이 연상된다. 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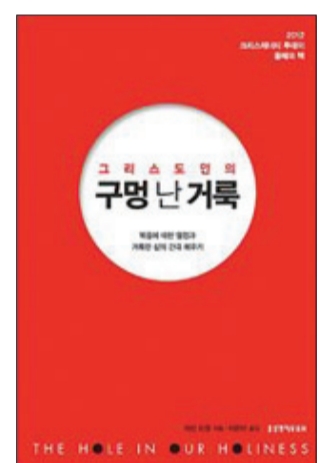
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거룩한 삶의 간극 메우기’.

저자는 이 시대의 ‘거룩’이 마치 ‘캠핑’과 같아졌다고 말한다. 누군가에게는 멋진 일일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예를 들면 저자)에게는 그것 없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일종의 ‘취향’처럼 되어버렸다는 것. “나는 사람들이 왜 캠핑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한 취미를 가진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만 내 취향이 아니라는 것 뿐이다. ... 혹시 당신이 개인적인 경건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캠핑을 대하는 자세와 같지는 않은가?”

이처럼 거룩에 구멍이 나 버린 이유로는 그는 ‘한물 간 시대의 유품처럼 이상해 보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장 먼저 꼽는다. 과거에는 경건을 ‘음

주·흡연·춤’ 등 몇몇 금기사항을 삼가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종류의 규율에 참을성이 별로 없고, 이를 지킬 경우 ‘1950년대 도덕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염려한다는 것.

‘교회 안에 거둬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도 주요 이유이다. 일부 교인들이 아직 성령으로 거둬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드영 목사는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과 권위자들은 교회 안의 세속성에 주목하면서 ‘거둬나’의 삶의 방식에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거둬나지 않는다’는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지적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 케빈 드영 | 이은이 역 | 생명의말씀사 | 224쪽

자원을 훨씬 뛰어넘지만, 유행에 정통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데 급급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또 ‘경건하지 못하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 자체가 개방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선 비판적이고 편협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

저자는 “우리는 전부 구제불능의 죄인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때문에 경건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좌절감을 느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뿐임을 발견한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내용들은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울 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들로 채워져 있다. 이대웅 기자

Advertisement for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featuring a large '복사기 무료' (Copier Free) banner, images of copiers, and contact information: (800)582-3321 / (562)802-9044, www.fbmcopiers.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사과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전기 . 철공

계단, 펜스, 창틀, 보조문

용접, 게이트

경남 철공소

모터 수리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10% 할인

✓브레이크 ✓투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커피 미니 자판기 CoffeeTreeUSA

따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간편하게 즐기세요.

밀크커피/한국차(유자차, 검은콩 울무차, 대추 생강차) 핫초코/카푸치노/블랙커피

T.213-272-7502

www.Coffeetreeusa.com

1513 S. Victoria Ave Los Angeles, CA 90019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빙베어 농축 흑염소

-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년]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선녀탕(仙女湯)매매

Meaning yellow matter 금중에서 나오는 물

The natural minerals, sulfur, Calcium and magnesium with arsenic(비소). 최상급 수질, 최고수준 자연온천을 매매합니다.

선녀가 내려와 목욕할 정도의 최고급 수질 온천을 일명 선녀탕이라고 하는데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상 온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Lake Isabella 근처 최상급 수질의 선녀탕, 각종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치료와 미용에 으뜸인 자연 온천에 귀하신 분들의 투자, 동업 나서는 매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궁극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818-371-0763

전단지

문의 : 213-739-0403

기독교일보 광고사업팀

디자인에서 인쇄, 배포까지

그냥 한번에 해 주는데 없을까?

교회 행사용 전단지, 브로셔, 교회배너..

one  
stop



COLUMN

# 오바마 대학등록금과의 전쟁 선포, 중산층에 득 될까?

오바마 대통령이 중산층살리기의 일환으로 대학등록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혹자는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중산층을 위하는 일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될 만큼 중요하다.

소득계층간 부의 편중이 갈수록 심각해서 이미 견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국부의 절반 이상이 상위 5%에 몰려 있다. 중산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성장동력이 힘을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대학교육에 메시지를 들이대겠다고 나서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심한 반발을 일으킬 여지가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를 일이다.

한편으로는 대학졸업장이 더 이상 사회적인 성공이나 부를 약속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대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75% 이상이 소득 상위 25%의 가정에서 왔다. 학자금 용자가 가능하고 장학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지만, 대학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넘기에 버거운 산이다.

미국 주립대학의 평균학비가 주 거주자를 기준으로 할 때에 \$8,655라고 한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 만달리러 넘는 주도 많이 있다. 다른 주에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라면 \$17,000을 훌쩍 넘어간다.

그리고 생활비를 대략 \$12,000 정도로 계산을 한다면 주립대에 가더라도 일년에 \$20,000가 필요하다. 4년만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결국 \$100,000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립대의 경우는 일년에 오만 달러가 넘는 대학이 많다. 대출받은 학자금은 개인파산을 한다고 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졸업 후 취업이 어렵다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대통령의 제안을 보면 대학생들이 재학기간 동안에 지출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대학의 등급을 정



하인혁 교수  
웨스턴캐롤라이나대학

하고 이를 연방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FSA)와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대학 학비 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학자금지원을 정부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일이다. 로스쿨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는 말도 했다. 어차피 3년차에는 인턴이나 실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되면서 비싼 등록금을 내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가뜰이나 지원자들이 감소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로스쿨들은 거의 문을 닫게될 지경이다.

대학에서 과연 적절한 학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예산의 80% 전후가 인건비이다. 교직원들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수의 수를 줄이게 되고 강의당 학생수가 많아지게 된다. 한번에 100명 이상을 모아 놓고 일방적인 강의를 해도 괜찮은 과목이 있기도 하지만, 불과 2-30명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강의를 해야만 하는 과목도 있다. 결국에는 그 기준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이다.

대학교육은 사립대학들이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이비리그로 불리우는 대학들은 그 역사가 300년이 넘는다. 하버드대학은 1636년에 설립되었다. 주립대학중에 1호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은 무려 150년이나 후에 (1789년) 세워졌다.

좀더 길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립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기에 사람들은 개인교사를 통해서 혹은 사립학교를 설립했

다. 당연히 교육이란 선택된 소수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서 사립교육과 공립교육의 현격한 차이를 가져온다. 사립학교의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공립교육이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공립교육의 질을 추락시키게 되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사립교육으로 몰리게 된다. 결국 더 많이 가진 자들만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

십억달러 (\$1,000,000,000)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반값에 해당한다. 그 돈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틀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혹은 주립대학에 있는 학생들 십만명의 일년치 수업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정부는 교육에 관해서 언제나 예산부족을 탓하지만 정부 예산이 남아돈 적은 없었다.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현재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는 교육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우선순위가 틀렸다. 그래서 미래가 걱정이다.

## 현장이야기 ◆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소감문 ◆

### “아버지가 건강하면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역할과 사명을 일깨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온 <두란노 아버지학교>. 그간 미주에서도 아버지학교를 통해 수많은 가족들이 용서와 치유,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이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울골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역할이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없다.

이에 가정내 구성원간의 대화법, 남편과 아내의 사랑 표현법, 아버지의 역할, 십대 자녀와의 대화 물꼬를 트는 방법 등 두란노 아버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비롯 주변의 여러 사연들을 나눔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지난 4월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다녀온 한 아버지의 뜨거운 고백과 생생한 간증이 담긴 수료소감문을 일부분 소개한다. <편집자주>

인생의 반려로서 사랑과 아픔을

항상 같이 해온, 아버지학교에 참가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준 아내에게, 아버지란 이름을 나에게 선물로 안겨준 아들과 딸에게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해주신 아버님과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소중한 경험과 정겨운 얘기를 들려주시고,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신 조원 형제님들과 조장님, 그리고 모든 봉사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형제란 이름으로 강의해 주신 감사님들께도 감사합니

다. 이 모든 감사한 마음들을 모아 모아 '새로워진 아버지'란 이름으로 새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의 고단함에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고 자상한 모습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자식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그러한 기쁨의 추억들을 되새기며 가정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보며 다짐했던 말, “난, 아버지처럼 살진 않을거야.” 부부 싸움 하고서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던 말, “당신이 준 상처, 절대 잊지 않을거야.”

아들을 다그치며 했던 말, “똑바로 해, 아빠가 실망했어.” 이 모든 말들이 나를 변명하고 가족들에게 상처준 말들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란 이름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고,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학교의 슬로건을 가슴 깊이 외쳐 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살아야, 가정이 산다!” LA 71기 수료자 김○○

#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중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스 현대

# SUPER STORE

## 8월 스페셜

좋은이자율! 최상의 서비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곳!

### 2013 ACCENT G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7,340 (STK #115126)  
PH HYUNDAI D/C \$889 MILITARY REBATE \$500  
VALUED OWNER COUPON \$500 COLLEGE REBATE \$400



### 2013 SONATA GLS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75 (STK #702299)  
PH HYUNDAI D/C \$1,328 LEASE CASH \$1,0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 2013 EQUUS SIGNATURE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6,999  
MSRP \$60,170 (STK # 069499)  
COLLEGE REBATE \$400 MILITARY REBATE \$500  
COMPETITIVE OWNER COUPON \$1,000



다양한 차량과 색상 보유! 자체 파이낸싱과 특별할인 프로그램!

갖고 싶은 현대차를 가장 좋은 이자율로 모시고,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더욱 만족을 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세요!

에드윈 김  
626.610.6570

로버트 정  
323.839.7074

스티브 장  
626.513.4005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sup>®</sup>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